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1천만 유튜브 시청자 조직”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지켜야 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5대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취임식이 15일(목) 오후 2시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취임식은 1천만의 유튜브 시청자 조직과 책 ‘하나님과 트러프’ 이승만의 분노, 출판기념회와 함께 진행됐다.

1부 예배는 이용규 목사(증경대표회장)가 사회를 본 가운데, 이에 경 대표(애니선교회)의 대표기도, 창19:24-29절을 중심으로 길지연 목사(증경대표회장)의 설교에서 “아브라함은 허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가정이 죽음에서 구원받는 역사를 체험 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 그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다”며 “출애굽기 말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언약을 생각하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 주셨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건져내실 것을 확신한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산다고 했다. 나라와 교회를 건지기 위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기도, 말씀의 사람인 전 목사님을 세우셨다”

며 “한기총과 한국의 교회가 다시 일어나 이 나라 이 민족의 백성이 다시 깨어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엄성형 목사(증경대표회장)가 축사를, 지 덕 목사(증경대표회장)의 축도가 있었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오재조(전,유니언대학총장), 이강평(서울기독교총연합회장), 장경동(대전중문교회 담임목사), 김문수(전 경기지사)가 각각 전광훈 목사의 신화자, 성경학자, 부흥사, 애국운동가로서의 면모를 언급하며 격려했고, 권태진 한교연 대표회장이 축사했다.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전광훈 목사는 “최초의 선교사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의 일기장을 보면 ‘하나님, 이 어두운 땅에 왜 우리를 보냈습니까?’ 이 조선 땅에 와 보니 앞을 봐도 어두움, 뒤를 봐도 어두움밖에 없고 고통이 체질화되어 고통인 줄 알지 못하고 살고 있으며, 그 고통을 벗겨주려고 가까이 가면 서양귀신이 온다고 소리치며 도망갑시다”라고 적혀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척박한 땅에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선교사를 보내 주어 대한민국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 그 후로 한국교회는 민족을 개화 시켰고, 독립운동을 주도했고, 장로인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 건국에 앞장섰다”고 했다. 하지만 “이 시대가 한국교회

를 비난하고 있다.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 교회가 이 나라에 끼친 영향력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교회, 학교, 병원을 지었다. 그보다 위대한 사건은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특히 기독교 입국론이란 기동으로 국가를 운영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를 선택할 때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내세우고 중국과 주체사상을 선택했다. 70년 뒤 북한은 가난한 나라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을 인정하지 않고 나라를 해체하려 한다”며 “그러나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나라다. 결단코 내어줄 수 없다. 이 나라를 지켜내자”고 호소했다.

끝으로 전광훈 대표회장은 “한기총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가가 해체되는 것을 막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모든 약의 세력에게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나 부른 노래, 시편 126편을 부르자”고 했다. 이밖에 이날 출판기념회에선 고영일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고, 이춘근 국제정치학 박사(전 연세대학교 교수)와 김무

성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각각 서평했다.

한편 한기총 25대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는 김무성, 유승민, 안철수 등이 하나로 연대하여 총선에 임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은 해체될 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해있다고 말하고, 지금까지 애국운동을 고생스럽게 해왔는데 박근혜 석방, 탄핵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이루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해온 애국운동은 무효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전 대표회장은 또 돌아오는 총선을 대비하는데 있어서는 우리끼리의 세부적인 논쟁을 해도 늦지 않다는 다짐을 끝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건투를 빈다고 말했다.

선서

하나님께서 금세기 최고의 선물로 주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일천이백만 성도와 삼십만 목회자, 이신오만 장로님, 오십만 선교가족을 반드시 지켜내고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첫째, 일천이백만 성도는 열두시 정오를 기해 국기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에 참여한다. 둘째, 일천이백만 성도는 하루에 한장씩 성경을 읽는다. 셋째, 일천이백만 성도는 십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힘쓴다. 넷째, 일천이백만 성도는 하루에 한명씩 꼭 복음을 전한다. 다섯째, 일천이백만 성도는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일천만 유튜브 시청자조직을 한달 안에 서명 완료한다.

한교연 제8-2차 임원회, 한기총과의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3.1운동 백주년기념 “종교의 공익성과 자유” 주제 포럼 개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은 2월 18일(월) 오전 11시 대표회장실에서 제8-2차 임원회를 열고 한기총과 통합을 추진하기로 하고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을 대표회장에게 위임했다.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임원회는 한기총과의 통합 건을 다뤄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와 통합합의서에 서명하게 된 배경에 대해 먼저 사무총장 최귀수 목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들었다.

이에 대해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지난 1월31일 당선 인사차 내방한 자리에서 양 기관 통합에 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한국교회가 하나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공감하여 양 기관 통합 합의서에 서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권 대표회장은 “합의서 서명은 앞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라며 “임원회에서 통추위 구성을 허락해 주면 한기총이 통추위를 구성하는 대로 양측 통추위원들이 만나서 구체적인 통합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임원회는 한기총과의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을 허락하고 위위 선임은 대표회장에게 위임했다.

대표회장은 임원회 직후에 통추 위원장에 송태섭 목사, 위위 김효중 목사 김동성 목사 박만수 목사 김병근 목사 등 5명의 통합추진위원을 선임했다.

임원회는 또한 3.1운동 백주년을 기념해 오는 3월7일(목)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포럼을 개최하기로 하고 기획홍보실장 김준 장로부터 포럼 세부 일정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종교의 공익성과 자유”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3.1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인중에 기독교인이 18명이나 되는 등 한국 기독교가 나라와 민족의 자유 독립에 끼친 숭고한 신앙 정신이 훼손되는 작금에 상황을 한국교회의 위기로 진단하고 “정치권력화하는 동성애”와 “기독교사회에서의 인권”, “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침해” 등 3개 발제를



통해 한국교회의 긴급 현안에 대한 중지를 모으기로 했다.

임원회는 회의 말미에 모 임원이 한교연이 3.1운동 백주년 기념 대회에 공식 참여하는지, 참여하지 않는지 질의하자 대표회장이 참석한 임원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가며 개인 의사를 물었으나 찬반 의견이 팽팽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대표회장에게 위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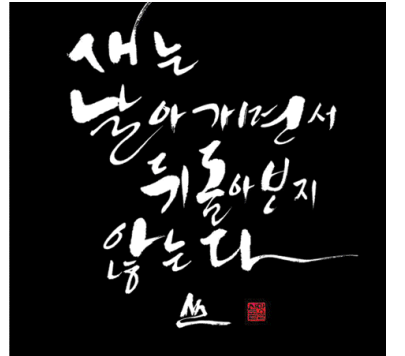
임원회는 또한 오는 2월 21일 (목) 서울의 마지막 남은 달동네인 백사마을에서 “사랑의 연탄나누기” 봉사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무총장 최귀수 목사는 “난방을 전적으로 연탄에 의지해 생활하는 빈곤계층의 경우 혹한기 뿐 아니라 4월까지도 연탄을 때면 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2월부터는 거의 외부 후원이 끊어지는 바람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형편”이라고 보고하고, “이럴 때 한교연이 앞장서서 가난한 이웃의 연 가슴을 그리스도의 십자로 따스하게 데우는 귀한 사업에 발벗고 나서고자 한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한교연은 지난 2012년 창립 이듬해부터 매년 연탄 2만장을 백사마을에 기증해 왔으나 올해는 연탄값 인상으로 외부 후원도 줄어드는 사정을 감안해 후원을 3만장으로 늘리고 21일 오전 10시에 연탄교회(허기복 목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임직원과 봉사자 등 50여 명이 직접 가가호호 연탄을 지고 나르는 봉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할머니의 교훈 -8-

내 고향 산골마을에 옛날에는 새들이 많았다. 황새 왜가리 백로... 그리고 독수리 매 올빼미... 할머니는 어느 날 내 손을 잡고 논둑길을 걸다가 말씀하셨다. “저 하늘을 나는 새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아 자기가 가야 할 곳만 바라보고 나르는 거야... 그래서 하늘을 나는 새들을 유심히 살펴봤었는데 정말 하늘



을 나는 새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었다. 사람도 하늘을 날고자 하는 사람은 자꾸 뒤를 돌아다 보면 앞을 향해 갈 수가 없는 것 아닐까? 사진작가 임영수 목사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국제에 복부흥사회

주어!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게 하소서!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로 강하게!

말씀으로 새롭게!

총대표회장

곽영민 목사

수석부총재

임순학 목사

부총재

최동준 목사

사무총장

이선한 목사

강사단장

정사라 목사

공동회장

이현주 목사

재정부장

김지언 목사

회원

이영미 목사

고문

정기남 목사

총재

이흥희 목사

고문

이환호 목사

수석상임회장

김혜중 목사

고문: 이환호 목사, 정기남 목사, 자문: 이병학 목사, 총재: 이흥희 목사, 수석 부총재: 임순학 목사, 부총재: 함성교 목사, 객예스드 목사, 윤동훈 목사, 김성수 목사, 최동준 목사, 총대표회장: 곽영민 목사, 수석 상임회장: 김혜중 목사, 파라과이 대표회장: 객성건 선교사, 일본 대표회장: 이영자 선교사, 캄보디아 대표회장: 박달수 선교사, 파키스탄 대표회장: Mark Hanby 선교사, 사무총장(상임회장): 이선한 목사, 상임회장: 윤주만 목사, 재정부장(실무회장): 김지언 목사, 회계(사무국장, 실무회장): 김영애 준목, 강사단장(실무회장): 정사라 목사,

실무회장: 전미리 목사, 김창숙 목사, 수석 공동회장: 모성준 목사, 공동회장: 이혜인 목사, 이현주 목사, 황선영 목사, 김희영 목사, 전길수 목사, 백이삭 목사, 조명희 목사, 우사랑 목사, 회원: 이호성 목사, 김수자 목사, 김성호 목사, 최건숙 목사, 이영미 목사, 정현영 목사, 김선우 목사, 김연화 강도사, 「회원가입 및 집회요청 문의: 사무총장: 010-8291-8081, 사무국장: 010-6778-0651」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

장학일 목사 초청 은혜한인교회 신년축복성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지난 24일(목)-27일(주일) 4일간 장학일 목사(예수마을교회)를 특별초청 신년축복성회를 비전

센터에서 가졌다.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살전 5:16-18) 주제로 열린 2019년 신년축복성회에서 장학일 목사는 첫째 날 오후 집회에서 ‘구원의 복’(갈 1:6-10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장 목사는 “인간의 경험, 지식, 이성, 유익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전할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낯선 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성육신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듣지 못해 멸망할 자 없도록 차별 없이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는 말씀처럼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다. 신앙은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

으셨다가 부활하신 구세주이심을 믿고, 그 예수를 마음속에 모심으로 시작된다. 신앙고백은 예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을 입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이는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고 확인하게 해준다. 또한 구원은 열매 맺는 신앙으로써 증거 된다. 특별히 불신자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써 증거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 목사는 이번 신년축복성회기간 중 △복 있는 사람(시 1:1-6) △믿는 자에게 따르는 능력(막 16:15-20) △축복과 복(창 14:17-24)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는 삶(살전 5:16-18) △인비저블(고후 6:1-10) △성령의 능력(행 4:28-31) 등의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에스더 리 기자

“끈덕지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용사”

마데테스개혁신학대학(원) 봄 학기 개강예배

마데테스개혁신학대학(원)(총장 현연섭 박사)는 지난 4일(월) 오후 7시 교직원, 교수 및 재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체플실에서 봄 학기 개강예배를 드렸다.

교수 김경수 박사의 인도로 진행된 봄 학기 개강예배에서 교수 김영관 박사가 대표기도를, 스티브 황 집사가 특별찬양을 한 후, 교수 박상목 박사가 ‘감정의 기도’(누가복음 11:5-8)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 교수는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 삽입됐던 주기도문은 기도의 방법과 모범을 보여준다. 또한 예수는 기도의 원리와 간절하게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 따라서 모든 기도의 내용은 진리인 주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하며, 진정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거짓과 불의, 이기적 만



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솔직함과 정직함으로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우리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므로, 참고 기다리는 것이 곧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는 자의 바른 자세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명 결고 끈덕지게 기도하는 자

제후사 대표 이정현 기자

서울교육청의 비교육적 ‘ 쌤/님 ’ 이 안 되는 이유

사명을 위해 한국교회 하나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연회 대표 유만석 목사

서울시 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달 초 ‘서울교육 조직문화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소위 수평적 호칭제 도입으로, 교육의 구성원 간 호칭을 ‘쌤’이나 ‘님’으로 통일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물론 이 외에도 10여 가지 혁신안을 내놓았지만, 호칭 사용에 대하여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였다.

‘쌤’이란 말은 선생님의 줄임말이라고 하나, 이것은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의미의 말이 아니다. 이 말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알잡아 보거나 비하하는 말이 된다.

그런데 서울시의 교육을 담당하는 서울교육청이 이런 안을 내놓다니 황당하다. 가족이나 교권이 무너지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매를 맞는 시대에, 교사들을 더 낮게 보도록 만드는 용어를 사용토록 하는 것이 교육청의 할 일인가?

결국 서울교육청은 이런 처음 발표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빈발하자, 이를 취소하고, 사제 간에는 ‘선생님’이란 호칭을 사용키로 2월 7일 발표하였다. 그러나 교사 구성원 간에는 ‘쌤’이나 ‘님’ ‘선생님’을 자율적으로 부르도록 하여,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다.

이를 해프닝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의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서울교육청이 이런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할 때, ‘수평적 호칭제’는 상호존중으로 나아가는 수평적 조직문화의 첫 걸음’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과연 호칭을 수평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존중으로 가는 길일까? 오히려 학생들이 자신을 가

르치는 선생에 대하여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가?

프랑스는 소위 ‘68혁명’을 1968년에 일으켰다. 이는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협력하여 일으킨 사회변화이며, 기존 질서와 가치를 뒤집어 놓는 엄청난 변혁이었다. 그러나 이 혁명은 국가적으로 볼 때 결코 성공적이라고 볼 수 없다.

1998년 시사저널은 프랑스의 68혁명 30년에 대한 기사에서, ‘68년 이후부터 프랑스는 완전히 버릇없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말에서부터 존칭이 사라졌다’고 평가하였다. 프랑스는 68세대가 정치, 경제, 사회의 주인공이 된 이후 끝없이 추락하여 공권력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말았다.

프랑스의 23대 대통령을 지낸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도 68혁명 이후 격화된 교사의 권위 회복을 주장하였고, 68혁명이 학교에 남긴 폐해를 강력히 비판했었다.

2017년 프랑스 총선에서도 68

혁명 이념을 따르던 사회당은 277석에서 30석으로 추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당 국가 프랑스는 68혁명 이후, 유럽에서 줄곧 이당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금 한국에서도 프랑스에서 실패의 실태로 끝난 ‘68혁명’의 일환으로, 인권교육이니, 수평적 호칭제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교사와 학생을 수평적으로 보자는 것은, 기존 가치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학생들을 앞세워 사상적/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돌아온다. 왜 우리가 실패로 끝난 유럽의 사회현상을 비판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가?

서울교육청이 주장하는, 선생님들 간에도 국적불명이고, 교사를 스스로 낮춰서 부르는 ‘쌤’이란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 말은 의미를 담고, 그 의미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엄연히 지식과 인격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어찌 잘못된 호칭으로 교육 구성원 간의 관계를 무너뜨리려 한단 말인가? 그리되면 누구에게 가장 손해가 되는가? 국가의 미래와 함께 우리 청년들의 인성과 인격이 파탄을 맞게 되는 것이다.

“섬기며 봉사하는 한인회로 거듭날 터”

OC한인회 시무식 및 새회관 입주식/ 남문기 회장 1만 달러 기부 약속

OC한인회(회장 김중대 장로)는 지난 15일 시무식 및 새회관 입주식을 가졌다. 이용훈 수석부회장이 개회를 선언 한 후, 박진방 회장 외 한우회원 일동이 OC한인회기를 들고 입장한 뒤 국민의례를 한 후,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담임)가 대표기도를 했다.

회장 김중대 장로는 “희망찬 새 아침을 맞아 한결 같은 사람으로 OC한인회를 성원해 주신 모든 동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지난해 우린 OC동포 숙원 사업인 종합회관을 40년 만에 쾌거를 이뤘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이 일을 위해 불철주야 똥수주하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결국 우린 모든 역량을 모아 동포들의 성금으로 오랜 숙원 사업의 하나인 새회관 입주식을 오늘 드디어 갖게 됐다”고 말했다.

김완중 LA총영사는 “역사적인 대업을 이룬 OC한인회를 축하한다.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영광에 이르게 됐다고 본다. 한민족의 뿌리를 잊지 말고 늘 한국인의 긍지를 갖고 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주류사회에서 큰 역



할을 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를 내어주기 바란다. 다시한번 새회관으로 입주하게 됨을 축하한다.”고 말한 후, 김경자 이사장, 이용훈 수석부회장, 민 김 수석부이사장, 최학선 부이사장, 이종운 관리이사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미셀박 스틸(OC수퍼바이저 부위원장)은 “한인커뮤니티의 패거라고 본다. 앞만 보고 달리는 김중대 회장을 비롯해서 OC한인회 임원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은 사업계획으로 ▲동포들의 꿈을 이뤄주는 베이스 캠프로 발전시켜 나가며 ▲OC내

에 명성 있는 봉사기관으로 거듭 발전해 가도록 하고 ▲회관 수입을 극대화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탈피하고 임여 수입금은 군소단체와 기관들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차기 회장단이 봉사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통장 별련스를 유지하며 ▲OC전 지역을 아우르며 봉사하는 한인회로 거듭나도록 하고 ▲주류사회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OC내 각 시정회 임원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현욱 기자

“주께서 하십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예복교회

YEBOK PRESBYTERIAN CHURCH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 셧니다.(시 30:11)

예/배/안/내

대 예 배 1부: 오전 9시30분, 2부: 오전 11시
주일저녁 오후 7시, 유치부 오전 11시

주 일 예 배 주일학교 오전 11시
청년·대학부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30분

수 요 예 배 수요일예배 오후 8시

금요일예배 금요일 오후 10시

토요일예배 토요일 오후 10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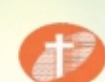
심 야 기 도 회 매일오후 10시(단, 주일과 수요일은 제외)



담임목사 소진우
PASTOR SO JIN WOO

- 열방부흥선교협의회 총재
- 지저스타임즈 사장
- JTNTV 가정예배 칼럼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CBS TV 칼럼리스트

H.P: 010-8753-7179
교회: (02)934-1232(대)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교회: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40(장암동)
☎: (02)934-1232

■ 靑松 건강칼럼 (678) '살인(殺人)먼지'와의 전쟁

조용한 살인마(殺人魔) 미세먼지

靑松 박명운 박사
보건학박사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세계보건기구(WHO)는 황산염, 질산염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추가 연구결과로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더욱 밝혀지면서 이제 미세먼지는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저감(低減)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빚겨간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용한 살인마' 미세먼지와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2017년 5월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미세먼지 배출을 30% 감소시켜겠습니다"고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해 "정부가 손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며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 건강권(健康權)을 지키기 위한 국정 과제로, 미세먼지 문제를 흑한·복합처럼 재난(災難)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정부에서 초미세먼지를 공식 측정항 후 지난해 초미세먼지 관련 주의보가 전국적으로 총 316회 발령이 나서 전년(2017년)의 128회 보다 2.4배 증가했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월 25일 중국과 맞닿은 전남 영광 북서쪽 약 110km 서해상에서 인공강우(人工降雨, artificial rainfall) 실험을 수행했다. 그러나 인공강우의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던 전남 영광지역에선 비가 내리지 않았다.

네이버 카페 '미세 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미대촉)에 올라온 게시물 중에는 하늘을 회색 크레파스로 색칠한 그림을 들고 온 딸에게 엄마가 "하늘이 왜 회색이야?"라고 물었다. 딸은 "회색이라 회색으로 칠했는데 안 예뻐?"라고 되물었다. 엄마는 이런 일화를 소개하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회색빛이 아닌 푸른 하늘을 보고 싶다.

우리나라 겨울철 기후 특성은 삼입은 춥고 사립은 따뜻한 삼한사온(三寒四溫)이나, 요즘은 삼한사온에 빔대 삼한사비(三寒四雨)란 말이 등장했다. 즉 북풍이 부는 사흘은 춥고, 서풍이 부는 나흘은 중국발(發) 미세먼지로 고통을 겪는다는 의미다. 미세먼지에 '한국산' '중국산' 꼬리표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출처를 알 수 있을까. 지금의 미세먼지 출처 분석은 중국발 오염 물질이 우리나라 오염 물질에 비해 황산화물(黃酸化物) 농도가 높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황산화물은 석탄 연소 시 주로 발생하며, 중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석탄 연료 사용량이 많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는 선진국 도시의 두 배 수준이며, 중국은 한국의 세 배 정도였으나, 중국은 대기오염 방지 5년(2013-

2017) 계획 동안 3분의 1정도 오염도를 떨어뜨렸다. 그래도 중국의 대기 오염도는 아직 한국의 두 배 정도다. 중국은 오염 배출을 결사적으로 줄였으나,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해 대기질(大氣質)이 정체 상태다.

서울의 초미세 먼지 일평균농도가 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월 11-1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초고농도 미세먼지의 국외 영향이 69-82%로 평균 75%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전국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129 $\mu\text{g}/\text{m}^3$, 경기 북부 131 $\mu\text{g}/\text{m}^3$, 경기 남부 129 $\mu\text{g}/\text{m}^3$ 등 대부분 지역에서 2015년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초미세먼지(PM2.5) 농도 분류는 좋음(0-15 $\mu\text{g}/\text{m}^3$), 보통(16-35 $\mu\text{g}/\text{m}^3$), 나쁨(36-75 $\mu\text{g}/\text{m}^3$), 매우 나쁨(76 $\mu\text{g}/\text{m}^3$ 이상) 등으로 분류된다.

서울의 초미세 먼지 일평균농도가 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1월 14일에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미세먼지를 피할 곳이 없었다. 광화문 인근의 경우, 광화문 광장(123 $\mu\text{g}/\text{m}^3$), 광화문 지하철역 대합실(125 $\mu\text{g}/\text{m}^3$), 카페와 식당 등 실내시설 중에서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100 $\mu\text{g}/\text{m}^3$ 을 초과하는 구역이 많았다.

우리나라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排出源)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다. 현재 환경부가 파악하고 있는 초미세먼지(PM 2.5) 관련 데이터는 2015년 통계이며, 이마저도 불신하다는 지적이 많다. 즉 사업장, 건설기계, 경유차, 선박 등 어디에서 어느 정도의 배출량이 나오는지에 대한 통계가 부실하다. 국내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16%, 수도권 지역의 경우 20%정도가 비도로 이동 오염원이다.

비도로(非道路) 이동 오염원이란 선박, 건설기계, 항공기 등과 같이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움직이는 물체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말하며, 이는 자동차와 같은 도로 이동 오염원과 대비시킨 개념이다. 예를 들면, 국내 선박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3만2300톤 수준이며, 초대형 크루즈선(cruise ship)이 짧은 이산화황 배출은 경유차 350만대 분량과 맞먹는다. 이에 부산은 7개 도시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1위이다.

그동안 초미세 먼지가 기관지(氣管支)와 폐포(肺胞)에 도달해 염증을 일으키는 등 호흡기 계통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많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코로 들어간 초미세 먼지가 혈관을 타고 바로 뇌(腦)를 공격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인간의 뇌에는 혈액·뇌 장벽(Blood Brain Barrier)이라는 구조가 있어 이 물질이 뇌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데, 초미세먼지는 크기가 아주 작아 이를 통과해 뇌에 염증 반응을 유발한다.

코를 통해 들어간 초미세먼지가 후각신경구(olfactory bulb)를 통해 뇌로 들어가 문제를 야기하거나, 초미세먼지가 코 상피세포에 영향을 미쳐 뇌에 염증을 일으킨다. 초미세먼지가 허파(肺)를 자극해 뇌에 염증을 유발하는 매개물질인 사이토카인(cytokine)을 발생시킨다. 초미세먼지나 사이토카인이 혈관을 타고 뇌로 이동하여 뇌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뇌졸중, 치매, 우울증 등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미국 남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이 65-79세 여성 3647명을 대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와 치매 발생률의 관계를 2017년에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이 낮은 지역에 사는 여성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 위험성과 치매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뇌로 침투한 초미세먼지가 신경 전달물질의 균형을 깨기 때문이다.

초미세 먼지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뇌졸중을 일으켜

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초미세 먼지 농도와 질병 등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1만1900명이 초미세 먼지로 조기(早期)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5646명(47.4%)은 뇌졸중(腦卒中)으로, 3303명(27.3%)은 심장질환, 2338명(19.6%)은 폐암으로 사망했다. 초미세 먼지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신체 내 염증반응 증가, 동맥경화 악화,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 등을 유발해 뇌졸중을 일으킨다.

이화여대 의대 하은희 교수팀은 미세먼지 농도가 10마이크로 올라가면 저체중아(低體重兒) 출산 위험이 7.4%, 태아사산(死産)할 위험이 13.8% 높아진다고 지난해 밝혔다. 서울대 의대 민경복 교수(예방의학) 연구팀이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바탕으로 성인 26만5749명의 거주지별 주요 대기오염물질 농도와 자살 발생률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초미세먼지에 가장 많이 노출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자살률이 4.03배 높았다.

대한폐암학회(Korean Association for Lung Cancer)가 2018년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여성 폐암 환자는 2000년 3592명에서 2015년 7252명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났다. 이들 환자 중 87.6%는 한 번도 흡연한 경험이 없는 비흡연자(非吸煙者)였다. 폐암 발병 원인은 생활 속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즉 간접(間

접)흡연, 라돈, 실외 미세먼지뿐 아니라 조리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대표적이다.

고온에서 굽거나 요리할 때 음식이 타면서 생기는 벤조피렌(benzopyrene)은 발암물질로서 인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한다.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교 연구팀이 일반 식당에서 흔히 하는 방법으로 스테이크 조각 17개를 15분간 가열했더니, 발암물질인 나프탈렌(naphthalene) 성분이 검출됐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상승했다는 결과를 2010년에 발표했다.

'미세먼지 생활수칙'은 ▲실내보다 실외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므로 운동 등 실외활동을 자제한다.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보건마스크(Korea Filter KF80 이상)를 착용한다. ▲외출 후 미세먼지가 묻은 옷이나 가방 등을 털고,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체내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이 되므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환기를 안 하면 오히려 실내 공기가 나빠지므로 적당한 환기가 필요하다.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면 오히려 먼지가 발생하므로 물걸레로 청소한다 등이다.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사태를 국난(國難)으로 인식하고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 미세먼지 대책은 국가에서 추진하여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원인 파악부터 제대로 하여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중국정부의 확고한 조치를 촉구하여야 한다. 국민들은 '미세먼지 생활수칙'을 잘 지켜야 하며, 문재인정부는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을 이행(履行)해야 한다.

君子三樂

孔子가 말한 군자삼락(君子三樂), 즉 論語에 나오는 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이란 배움의 즐거움, 멀리서 벗(친구)이 찾아오는 즐거움, 그리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의연한 태도를 지니는 것 등이다. "有朋(유붕)이 自遠方來(자원방래)면 不亦乐乎(불역락호)야" 벗이 있어 먼 곳에서 찾아오니 또한 기쁘지 아니하겠가? 멀리 떨어져 사는 친구가 찾아와 주고 고맙고 반갑다는 뜻이다.

멀리 미국에서 친구가 찾아왔다. 미국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이기현 사장이 업무차 중동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Dubai)로 출장을 가는 길에 서울을 방문했다. 지난 토요일(2월 2일) 저녁 6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한성 '서초원'에서 1960년대 대구파인트리클럽(PTC)에서 활동하던 옛 친구들과 만나 옛날 클럽활동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또한 2021년 8월에 개최하는 대구파인트리클럽 창립80주년 기념행사에 관하여 논의를 했다.

박명운 박사(보건학, 서울대가 안재암성·사회봉사·국제친선을목표로 창립한 한국파인트리클럽Fine Tree Club of Korea) 신하대 대구파인트리클럽은 1961년 8월에 설립되었다. 이기현 사장Kee H. Lee, CEO, Crown Products, Inc. Founded in 1993은 대구경북대학교 재학 시 대구PTC 제3대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미국 New Orleans Fine Tree Club 회장직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파인트리클럽PTC에서 1968년 11월 이후 배출한 회원 약 1만2천명은 국내외 여러 분야(政界, 官界, 法曹界, 教育界, 文化界, 企業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 마약 범죄와의 전쟁(4) |

헤로인 중독성 마약이란?

홍성선 목사
마약정보학박사NGO
세계기독청 설립이사장

〈지난호에 이어〉

▷사회에 끼치는 손실

마약남용은 개인과 가족 외에 또 다른 결과들을 초래한다. 사회에 가장 큰 부담되는 것 중의 하나는 마약의 사용이 역제를 감소시키고 공격을 증가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마약과 관련된 범죄와 폭력의 증가에 있다. 불법물질의 영향 하에 운전하는 것은 차량충돌과 썰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고와 사망자들을 초래한다.

마약남용은 또한 국가경제에 영향을 끼친다. 국가마약 통제조정정책 사무실에 의해 최근 연구한 바에 따르면 해마다 불법마약은 미국 경제에 160억 달러의 손실을 끼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 손실은 마약과 연관된 질병과 감옥생활, 사고와 죽음, 불법마약으로 인한 건강손실과 법적비용, 마약과 연관된 손해, 부상과 사망들로 인한 법집행 경비와 보험경비, 노동시간과 생산성의 손실로 인해 생긴다. 마약사용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법적 결과는 100% 방지할 수 있다. 마약을 하지 않는 생활양식을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이 결과들을 피하게 된다.

▷마리화나, 흡입제, 스테로이드

어떤 사람이 당신을 대담하게 학교 화학실험실로 데려가서 생소한 화학혼합물질을 들어키게 한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은 그 상상이 아주 터무니없고 미친 발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이것은 실제 사람들이 불법마약을 실험할 때 하는 것이다. 정부기관조차도 그것의 의약품으로 쓰여지고 있다면 그것들이 안전한가 혹은 순수 정제인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검사하지 않는다. 불법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마리화나

마리화나는 카나비스라는 인도산 대마의 일반적 명칭이며 그것의 잎사귀, 봉우리와 꽃들은 흥분의 효과를 보기위해 흡연한다. 마리화나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불법마약중의 하나이며 또한 Grass(풀, 잔디), Weed(잡초, 쉼터), Pot(단지)로 잘 알려져 있다. 이것은 알콜 다음으로 실험대들이 처음 실험하는 마약이다. 해쉬시(Hashish)와 해시(Hash)는 강한 형태의 마리화나이다. 연구자로는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개인이 마리화나를 전혀 한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사람보다 코케인을 사용할 확률이 1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 견해와는 상반적으로 이 마약은 해가 없는 것이 아니다. 모든 형태의 마리화나는 항진 작용을 하며 사용자의 뇌를 손상시킬 수 있다. 마른 마약과 혼합하여 사용하면 치명적일 수 있다.

▷마리화나와 중독

다른 향정신 작용성 마약처럼 마리화나는 도파민(뇌회질부 도파민 신경세포)이라는 뇌 화학물질의 수치를 올린다. 이 물질은 즐거운 감정을 생산한다. 어떤 마리화나 사용자는 이 마약이 너무 많은 도파민의 양을 방출시키도록 유발하므로 극심한 행복감이 도달하게 되나 약 기운이 떨어질 때 종종 그 즐거움은 급격히 멈춘다. 이 갑작스러운 하락은 "CRASH(추락)"이라고 불려진다. 마리화나는 흡연담배보다 더 많은 양을 유발시키는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담배흡연으로 인해 생기는 것 같은 건강의 위험성을 나타낸다. 마리화나는 또한 면역 체계를 방해하며 그래서 사용자는 더욱 더 질병에 감염되기 쉽다.

▷마리화나의건강위험

노에 끼치는 변화: ▶환각, 과대망상증 ▶손상된 단기기억, 반사시간, 집중, 그리고 협조체계 ▶과속된 시간감각, 시각, 촉각, 그리고 소리감각 ▶감소된 진취적 기성과 야망 ▶충렬된 눈 ▶입안 건조증 (다음호에 계속)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표어 : **중은만남 행복만성도(신 33:29절)**

장사 박수영 목사

- 한국여목성정학원장 원장
- 지저스타임즈 대구지사장
- 경북대학교병원교회원목위원
- 행복생전인류센터 원장
- 동무노회 노회장
- 행복샘교회 담임목사

집회 고침받은 내용

- ☆ 최병욱 : 심장병으로 숨막히고 쪼여짜는 고통에서 고침받음
- ☆ 류정호 : 만성변비로 가이아독대학병원에서 퇴원 장례준비중 고침
- ☆ 김소영 : 류머티즘관절 평생지병 집회중 선포 기도로 고침받음
- ☆ 남영수 : 재생불량성빈혈 경대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 김영자 :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음
- ☆ 박수영 :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간증
- ☆ 강복희 : 뇌정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음
- ☆ 김복자 : 고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음

송 예 배 시 간 안 내 송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예배 오후 7: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치유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9:00	새벽 기도회 오전 5:00
청소년부예배 오후 2:00	중보기도모임 매일 8:00

대구시 동구 송리로 16길 11(신선동)
동대구 반도유보라 상가(2층)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
신 입 생 모 집 요 강

김창숙 목사

◆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은 세계로신학술원과 학점교류를 통해 세계로신학술원 학장영의의 졸업장 수여함.

◆ 과점수로 후 세계로신학술원을 통해 연장수업으로(USA)Cumberland University 학위 취득이 가능함.

과정 : 찬양, 율동, 위업, 한국무용 수업요일 : 매주 월, 수, 금

장 소 : 꾸미오리선교센터(경기도 양주시 고암동182-3)

문 의 : H.P 010-4137-0796 (김창숙 목사)



세계로신학술원 ·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성중앙교회**표어 :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당회장 정대성 목사

2019 동여

성자하는교회

부흥하는교회

예/배/시/간/안/내

- 매일새벽예배 : 새벽 5:30
- 주일 낮 예배 : 오전 11:00
- 주일찬양예배 : 오후 2:00
- 저녁 기도회 : 매일 오후 8:00
- 토요직분자교육 : 오후 7:00
- 청년 / 학생부 · 통합예배
- 수요 예배 : 오후 7:30
- 금요철야예배 : 금요일 오후 7:30

경기도 김포시 운곡로9번길 15, (장기동 131) ☎ 010-6418-3468

절이 변하여 교회가 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날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Come & See

담임목사 김창룡



상담목사 박명미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길242번길75
전화: 010-7172-0675, 011-204-6795
팩스: 031-366-2235 홈페이지: www.gdffc.kr

국가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국가가 보호하나?

국민의 의무를 부정하는 양심은 엄격하게 다루어야



한국교회연회
대표회장 유만석 목사

지난 해 11월 대법원이 소위 종교적/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증인 신도 오 모 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며,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900여건의 판결 결과가 우려되는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30일 청주지법 형사 5단독(본태욱 판사)에서는 같은 이유로 기소된 또 다른 오 모 씨 등 5명에 대하여 무죄를 판결하였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에는 법정에서 '국가적 토대의 소멸을 원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어찌 국가를 부정하는 사람에게 국가에서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는가? 법원은 이를 양심적 발로로 해석한 것인데 너무 무리하다는 생각이다. 이를 합당한 판결이라고 인정할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국가적 토대의 소멸을 원한다’는 주장을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들리겠지만, 여호와 의증인의 교리에 의하면 놀라운

것도 아니다. 여호와 의증인들은 세상의 정부와 권력을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보고 있으며, 전혀 돌출적인 주장이 아닌 것이다.

사정이 그러한데, 정상적인 국민들의 의무를 어리석게 보며 국가 권력을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법원인 셈이다.

우리나라에는 여호와 의증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가 있다. 그런데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종교는 여호와 의증인이 거의 유일하다. 그렇다면 여호와 의증인만이 인정받을 만한 양심을 가진 것인가? 거기에는 국가의 존립을 반대하여 혼란을 주는 것도 양심이란 말인가?

진실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여호와 의증인들의 주장을 국민의 기본권 보장으로 보고 있는 바, 국민의 기본권에는 '양심의 자유' (헌법 제19조-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도 있으나 '국방의 의무' (헌법 제39조 1항-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도 있다.

그렇다면 두 기본권이 충돌할 때, 특정종교의 신념에 의한 양심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타당한가? 국방의 의무는 개인의 국가에 대한 의무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는 국가적/공익적 차원이 크다.

그리고 지난 해 대법원이 '대체복무제'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소위 양심적/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결정은 법의 한계를 뛰어넘은 월권이라고 본다 (대체복무제는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며 그 법이 존재하지도 않은데 이를 언급하는 것은 과잉 개입이 아닌가)

그리고 지난 12월 국방부에서는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대체복무제'를 초안하여 입법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공정하게 국민들의 여론을 듣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하여, 최근 (바른군인권연구소) 등이 주최한 '군 대체복무, 국민이 공감해야'라는 포럼에서 '국방부가 여론 조사를 할 때 대체복무 기간을 27개월, 30개월, 33개월, 36개월로 한정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33개월은 28%, 36개월은 29.1%, 그 이상은 36.7%로 국방부가 정한 기간보다 더 길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한다. 심지어는 50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18.7%가 나왔다고 한다.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에서도 군복무 기간의 3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14.4%가 지지했다고 한다. 3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사람들은 30대가 18.7%로 가장 많고, 20대가 15.4%였으며, 지지정당으로는 정의당 지지층이 1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소위 종교적/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한 법원의 판결은 일률적이며 '봐 주기식'으로 판결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는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 특정 종교인들이 그다지도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양심과 종교에 의한 신념이라면 이에 대한 판단 기준도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양심 세력'이라는 불쾌감과 박탈감을 당하는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야 한다. 또 특정 종교인들이 그다지도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양심과 종교에 의한 신념이라면 이에 대한 판단 기준도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적어도 온 국민들이 감당하고 있고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정하고 있는 의무를 거부하고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면서까지 양심을 말한다면, 어떤 상황도 감수하고 확고한 신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도록 하는데 충분한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

“새로운 여정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자”

새생명비전교회 입당 감사예배



새생명비전교회(담임 강준민 목사)는 지난 27일(주일) 새로 건축한 건물(4226 Verdant St)에서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입당 감사예배를 드렸다.

강준민 목사의 인도(통역 김민석 목사)로 진행된 가운데 김성곤 장로가 대표기도를, 새생명비전교회 오케스트라가 '주님나라 이루어 하소서'를 특별찬양 한 후, 케빈 히긴스 박사(윌리엄스대학교 총장)가 '새로운 여정' (통역 전병철 목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케빈 총장은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축하한다. 여호수아 1장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다.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는 것은 이전의 여정을



끝낸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생활을 마치게 되고, 이제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여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바로 지난 여정의 끝자락에 서있는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편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해주는 말은 결코 아니다. 굉장한 어려운 도전을 눈앞에 둔 사람에게 해주는 말이다. 사실은 그 여정의 크기가 어떤 건지 가늠할 수 없는 순간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해주는 말이다. 새생명비전교회가 입당예배를 드리면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어떤 건지 모르는 순간에 축하하는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기도 하다. 앞

으로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저도 모른다. 분명한 비전이 있고 여러분이 함께 준비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닥치게 될 어려움이 뭔지를 저는 가늠할 수 없다. 다른 것은 다 있어버려도 좋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성도여분! 누리고, 머무르고, 여러분의 시선을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고정시킬 바란다. 그래서 새생명비전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찾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축복한다.'고 말했다.

성도들이 건축 및 축하영상을 시청하고, 전영식, 오정수 장로가 '건축경과보고'를 한 후, 윤성원 목사(한국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며,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린다"며 "첫 번째, 귀한 것을 올려드려 성전을 세운 모든 성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 둘째,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하하고 싶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될 줄 믿는다."고 말한 뒤, 새생명비전교회 담임 강준민 목사에게 축하패를 전달했다.

이어 로스앤젤레스 13지구 시의원 미치 페러럴은 "배우고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자 한다. 저는 이웃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양육하고,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질을 높이기 위해 양육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다. 저는 여러분의 이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축하한다"고 말했다.

감사패, 장학금 수여를 한 후, 안수위원들이 김영규, 경희 선교사에게 선교사 파송식을 하고, 교육부 주관으로 축하공연을 한 뒤, 이병희 목사(세계복음선교회 대표)의 축도로 마쳤다.

이현옥 기자

당진성시화운동본부, 우경식 대표회장(당진성결교회) 취임

화농농문부 성기종회 및 대표회장 이취임식



충남 당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이취임감사예배가 지난 1월 31일 당진성결교회(담임목사 우경식)에서 당진성시화운동본부 임원 및 회원 그리고 성도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예배는 상임회장 백성일 목사의 사회로 회계 내세장 장로가 대표기도에 이어 서기 김재도 장로의 성경 봉독에 이어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마태복음 28:18-20절을 본문으로 "성시화운동의 특성과 핵심요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성시화운동은 전교회가 전복음을 전민에게 전하여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운동이다. 이를 위해 교인마다 전도하고, 시민마다 복음을 들려주고, 교회마다 배가 부름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운동"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운동으로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쌍손선교운동"이라며 복음전도와 사회 책임을 강조했다.

김 목사는 "성시화운동의 비전과 전략을 성시화운동에 참여하는 분들과 교회를 넘어 한국 교회 전체로 공유하여 확산해야 한다"며 "통일기도운동, 기독교공

공정책, 출산장려운동 등 한국 교회 전체가 함께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시화운동에 참여하는 유익에 대해 "우리의 비전을 확산시키도록 돕고, 우리 지역의 커다란 발전을 만들어주고, 믿음의 장벽을 깨뜨리도록 돕는다. 또한 건강한 지도력을 끊임없이 접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상임 대표회장을 맡아 이임하는 이수훈 목사(동일교회)는 이임사를 통해 "당진을 위해 더 기도하고 힘을 모아 기쁨이 넘치는 도시, 사랑이 넘치는 도시가 되도록 더 기도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우경식

목사는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후 내가 과연 이 직임을 맡아야 하는가를 놓고 계속 기도를 했다"며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대로 성시화운동에 참여하는 이들마다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겠다"고 말했다.

우 목사는 "올해 사업 중 3.1운동 100주년 기념예배를 시작으로 '나라와 당진시민을 위한 기도회'를 두 달에 한 번씩 개최하기로 했다"며 "또한 은퇴하신 목회자들을 섬기기 위해 은퇴목회자협의회도 구성했다"고 밝혔다.

격려사를 전한 충남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 오종설 목사는 "15년 전 당진감리교회 이철 목사님과 서산순복음교회 백승역 목사님과 함께 충남성시화운동을 처음 기획하고 시작해 15개 시군

이 참여하는 충남성시화운동본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물감을 아끼지 않는다"며 "성시화운동은 성령의 열매가 있다. 당진성시화운동본부에 참여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당진 성시화를 위한 기도와 복을 전도 그리고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당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경식 대표회장은 이수훈 직전 대표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고, 이수훈 본부 상임대표회장 김철영 본부 사무총장은 우경식 대표회장에게 취임패를 전달했다. 이어 사무국장 김진태 목사의 안내와 은퇴목회자협의회장 박용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당진성시화운동본부는 2004년 5월 설립되었다.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www.mokpodream.org

대한예수교장로회

꿈의교회

DREAMS COME TRUE...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2019년 3명 이상 전도합니다.

예/배/시/간

- 주일 1부예배 (일) 오전 7시 30분
- 주일 2부예배 (일) 오전 11시
- 주일 3부예배 (일) 저녁 7시 30분
- 살일예배 (수) 저녁 7시 30분
- 금요일예배 (금) 저녁 9시
- 새벽기도회 새벽 5시
- 오후기도회 오후 3시
- 저녁기도회 저녁 9시
- 월요일기도회 새벽 0시 30분

담임목사 이요셉

주소: 전남 목포시 산정로 322-3 (연산동) 전화/ 061) 277-0496 차량운행 : BUS 3번, 60번, 61번, 600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SINCE 1983.6.13.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담임목사 모상련

섬기는 분

부목사 모정선, 박민수, 성삼수, 모정은

파송선교사 임재선, 김은미, 안윤기, 김진희, 김미경

협동목사 장정화(은퇴)

전도사 전영록, 추정희, 송선택, 편(베트남신학교 유학)

사무장로 송영문, 천은상, 정승안, 이현필, 주종필, 김경서

김영규, 김학찬, 김선호, 모상훈, 송현중

협동장로 이병화

은퇴장로 고재현, 원복희, 장광호

예/배/시/간

주일 1부예배 1회 오전 8:00

3회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겨울 7:00)

새벽예배 오전 5:00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Mokpo Juan Presbyterian Church

본교회 :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159 (북항동) TEL. 061) 272-4908, FAX: 061) 276-1006

남안주안교회 : 목포시 무안군 삼합읍 남안5로 60번길 17 TEL. 061-287-0692

용해주안교회 : 목포시 용해지구로 61 (연산동) 삼합빌딩 301호 TEL. 061-277-0691

홈페이지 : http://www.mokpojuan.com

계시록 6장 강해(44)

환란 날 순교를 통해 그리스도의 신부로 환란 날을 통해 사역할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신다

(지나호에 이어서)

사랑 안에서 죽음 - 앞에서 말하는 칼과 굶주림도 영적 생명을 죽이는 사망이지만 '사랑 안에서' 죽이는 역사는 거짓말하는 영으로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5절에 검은 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의 하속이 되어버린 타락한 주의 종들입니다. 그들은 거짓말하는 영에 의해서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신의 말이 거짓말인지 모르고 참된 말로 알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망입니다. 거짓 종들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망케 하는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한 최고의 한국교회의 모 지도자는 사도행전 12장을 무엇이 라고 해석했나요? 사도행전 12장은 헤롯의 칼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고 그다음으로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 할 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교회들이 감옥에 갇혀서 순교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베드로 사도를 위해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신사참배를 한 그 주들의 종이 말하는 것은 '교회가 베드로 사도가 헤롯의 칼에 의해 죽지 않고 옥에서 나올 수 있게 기도한 것이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난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베드로가 나왔다고 전해주는 로데 소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하고 해석했습니다.

이 말이 참된 말인가요? 이는 자신의 육신목숨이 살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중심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의 모친의 집에 모여서 베드로 사도를 위해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기도했나요? 그들은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다. 베드로가 예전에도 계집 종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씩 부인했었으니 이제 그런 일이 없이 야고보 사도에 이어서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순교로써 승리하게 해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로데 소녀의 말을 듣지 않았었고 실제로 베드로를 보았을 때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순교의 피를 흘리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스테판이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고 그다음은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계속 이어서 옥에 갇히고 죽임당하는 때에 유월절 명절기간이 되어 사형집행을 잠시 늦추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다른 사도들과 교회들은 당연히 순교

장한국 목사

주시랑교회 담임

예정진리교회 총회장



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교인들도 베드로 사도의 뒤를 따라서 순교하기를 바라면서 기도로서 준비했었기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것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로데라고 하는 소녀는 어린아이기 때문에 신앙이 약합니다. 로데 소녀는 베드로가 죽지 않고 옥에서 나오기를 기도했었나까 현관문을 열지 않고 그의 음성만 듣고 도 기뻐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환란 전 휴거나 무천년주의 신학사상으로 무장된 교회들이 육신의 죽임인 순교를 원치 않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한국교회와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11절 말씀이 이미 순교를 당한 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만 보면 안 됩니다. 다섯째 인을 뿜 때 순교자의 수, 곧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들의 수를 다 채운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양이 봉인을 뿜 때에 환란이 시작되고 일곱 인은 7년 환란을 말한다고 깨달았습니다. 그 환란의 전 3년 반에 될 예언의 비밀이 전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다섯째 인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순교가 전 3년 반 안에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9절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 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10절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 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구약시대에 제사드릴 제 제물이 제단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본문은 하늘나라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고 했으므로 아벨부터 시작하여 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미 순교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미 순교한 자들이 '땅에 살고 있는 그들'에 의해 순교를

당했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 믿을 있는 자들을 죽인 자들이 죽지 않고 계속 땅에서 살고 오고 있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것은 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찢은 자들이 애국한다는 말이 이런 년 전에 로마병사가 아직도 살아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애국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 달라는 것은 순교한 자들의 죽음을 복수해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순교한 자들은 자신들을 죽인 자들을 원수로 여기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을 순교시켜 준 귀한 일꾼으로 고맙게 여기는 것입니다. 순교한 자들은 말씀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 즉 열매 맺는 삶을 살다가 피동적으로 죽이는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열매 맺는 기회를 사모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순교한 자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순교한 자들이 첫 번째 부활하여 부활체로서 다시 열매 맺는 기회가 있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그 날이 언제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11절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 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11절 말씀이 이미 순교를 당한 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만 보면 안 됩니다. 다섯째 인을 뿜 때 순교자의 수, 곧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들의 수를 다 채운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양이 봉인을 뿜 때에 환란이 시작되고 일곱 인은 7년 환란을 말한다고 깨달았습니다. 그 환란의 전 3년 반에 될 예언의 비밀이 전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다섯째 인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순교가 전 3년 반 안에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동료 종'은 환란 날에 사역하게 될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들의 이마에 새겨진 하나님의 인을 쳐서 정해 놓은 수가 십사만 사천 명입니다. '너희 형제들'은 이미 순교한 자들의 형제들을 말씀하므로 환란 날에 순교하는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 (계 7:9)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 흰옷 입은 무리의 수를 능히 셀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수를 알고 계십니다. 환란 날에 많은 수가 순교하게 될 것이나 그 수는 한정돼 있어서 그 수가 순교로써 다 채워지기까지만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긴 흰옷'은 순교자에게 주는 옷입니다. 이는 고백 죄, 성령 행방 죄 등 사함 받지 못하는 죄까지도 모두 사하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에 의해 순교를

당할로부터 발끝까지 긴 흰옷으로 하얗게 덮어주셔서 죄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어서 순교자의 수를 다 채우면 전 3년 반이 끝나는 때입니다. 여섯째 인을 떼면 어린양의 진노·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는 후 3년 반에 들어가는 때입니다. 후 3년 반의 총체적인 것은 여섯째 인으로 말하고, 후 3년 반의 구체적인 사건은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일곱 대접)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구조가 특별한 계시록의 뼈대입니다.

12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부터 다섯째 인을 뿜 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계시록 6장 1절 어린양이 첫째 인을 뿜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하신 말씀에 키포인트(key point)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인가요? 사도 요한입니다. 어린 양이 첫째 인을 뿜 때 그 안에 사도요한 자신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것을 보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의 예언을 받는 우리의 대표입니다. 계시록은 사도요한을 주된 계시 기관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사도요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에 주의 재림 직전에 있을 환란 날에 사역할 종들의 대표로서 먼저 사도요한이 등장한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에 가면 사도요한이 두 증인으로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사도요한의 자리에 두 증인으로 교체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 환란 날에 사역하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들의 이마에 인침을 받은 십사만 사천 명을 가리킵니다.

만약 우리가 환란 날에 쓰임 받을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계시록 6장 1절의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1장에 가서 사도요한이 두 증인으로 접속되어서 하나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사도요한과 우리 각자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되므로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양이 첫째 인을 뿜 때 사도요한과 내가 그 안에서 보고 들으니까 흰 말 탄 자가 보이는 것입니다. 또 어린 양이 둘째 인을 뿜 때 사도요한과 내가 그 안에서 보고 들으니까 붉은 말 탄 자 곧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교인들을 타락시키고 큰 칼로 죽이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또 다섯째 인을 뿜 때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순교의 역사에 자신도 해당되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12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부터 다섯째 인을 뿜 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계시록 6장 1절 어린양이 첫째 인을 뿜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하신 말씀에 키포인트(key point)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인가요? 사도 요한입니다. 어린 양이 첫째 인을 뿜 때 그 안에 사도요한 자신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것을 보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의 예언을 받는 우리의 대표입니다. 계시록은 사도요한을 주된 계시 기관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사도요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에 주의 재림 직전에 있을 환란 날에 사역할 종들의 대표로서 먼저 사도요한이 등장한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에 가면 사도요한이 두 증인으로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사도요한의 자리에 두 증인으로 교체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 환란 날에 사역하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들의 이마에 인침을 받은 십사만 사천 명을 가리킵니다.

만약 우리가 환란 날에 쓰임 받을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계시록 6장 1절의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1장에 가서 사도요한이 두 증인으로 접속되어서 하나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사도요한과 우리 각자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되므로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양이 첫째 인을 뿜 때 사도요한과 내가 그 안에서 보고 들으니까 흰 말 탄 자가 보이는 것입니다. 또 어린 양이 둘째 인을 뿜 때 사도요한과 내가 그 안에서 보고 들으니까 붉은 말 탄 자 곧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교인들을 타락시키고 큰 칼로 죽이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또 다섯째 인을 뿜 때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순교의 역사에 자신도 해당되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인부터 다섯째 인까지를 뿜 때와 여섯째 인을 뿜 때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 첫째 인부터 다섯째 인까지를 뿜 때는 먼저 인을 떼고 그 다음에 사도요한이 그 안에 속해 있어서 "내가 보고 들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문 12절에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기 전에 먼저 "내가 보니"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내가 다른 곳 즉 하늘나라에서 이 땅을 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섯째 인을 뿜 때 그 속에 자신이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목사코너 -203-

주시랑교회 장한국 목사

예정진리 총회장/언론부총사 부총재

(마20:20-23)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들을 데리고 주께 와서 경배하고 무엇인가를 주님께 구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 교역자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도하는 것임을 계시한 것입니다. 무엇을 구했냐하면 분명 어머니는 자식들 잘 되길 위해 기도하는 것이요. 이처럼 교회 교역자들도 오직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물으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러자 그녀는 "나의 두 아들을 주의 왕국에서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소서!"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네가 구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즉 잘못 구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왜요? 그녀는 주님이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존경하며 따르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임이 분명하고 장차 정치적으로 실제 위대한 왕으로 등극, 로마제국을 멸하고 옛 다윗이나 솔로몬 대제국 같은 왕국을 세우리라, 그때 내 두 아들이 크게 출세하기를 원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실제 주님은 바로 이 일 직전에 17-19절에서 강조했으니 곧 장차 불참해 고난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잔을 받을 수 있나이다" (22절 하반절) 이는 두 아들이 이 말씀에서 난 고백이 아닌 그들의 신념과 마음에서 나온 말이지요. 마치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념과 같이 말입니다(마26:33-35). 만일 그들이 진정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오 주여, 주께서 하시리라' 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참으로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나"라고 하셨습니다. 이 '참으로'는 '진실은 바로 이것이다'란 뜻으로 하신 것이요. 진실은 너희들 영은 이미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할 수 없으나 장차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오순절 이후) 그때에는 내 잔을 마시리라. 즉 순교하게 될 것이 '참'이다. '진실'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좌편은 순교자의 영광이니 내 아버지께서 순교자 명부에 녹명시키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요(계 13:8). 또 내 우편은 보다 큰 영광인 십사만 사천의 영광이니 이는 내 아버지께서 그 이마에 인친 십사만 사천의 종들로 세우시어 주시리라. 이것이 하늘나라 비밀이요 아버지의 신령한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 주시리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천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기도회 오후 7시30분
금요일아침기도회 오후 9시(구역예배) 각 구역별로
세벽기도회 오전 5시

담임 이규필 목사
(홍신대학 이사장)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02)854-1326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광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전예희 목사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96-79
☎(032)505-3351

대한예수교 장로회 시온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오전 11시 30분
주일오후 2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8시 30분
금요예배 오후 8시 30분

담임 조영만 목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39-2 (현대프라자 301호)
☎070-7501-2584 핸드폰 010-5355-2584
다음카페 http://cafe.daum.net/choym.com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망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담임 서동기 목사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67번지 현대아이파크A상가 2층
H.P : 010-3342-7302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강대일 목사
(평안부총회장)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02)433-0291(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천복복지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담임 임상국 목사

대구시 북구 동변동 U선수촌 213-703호
☎(053)741-7732, 070-4220-7735

대한예수교 장로회 풍성한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서재식 목사

경기도 시흥시 뱀내장터로4, 3층(신천동)
☎(031)315-8290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니엘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고성규 목사

경기도 시흥시 검바위1로 52-1
☎(031)312-2613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 오후 2:00
삼일예배 오후 7:30

담임 장승현 목사

충남 당진시 송악읍 봉화로 62-5(봉곡리 55-6)
☎(041)356-0644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심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수요발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심야작정기도회 오후 9:00(365일)

담임 서금열 목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14-4
H.P : 010-5225-1253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시랑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30
새벽예배 새벽 5시
금요철야예배 밤 9시

담임 장한국 목사
(전(총회장))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10, 701호(내손동)
홈페이지 http://jicn.kr ☎031)424-7621, H.P 010-4436-7060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서하나님의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수요기도회오후 8:00
금요기도회오후 9:00
2시 기도회(월~토)오후 2:00

담임 이정민 목사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소강석 목사, 미국 국제오찬기도회서 말씀선포

120개국 1500명 VIP 기립박수 받아 하나님께 영광!

경기도 용인시에 자리한 새에덴 교회 담임 소강석 목사는 지난 2월 6일 오후 2시 30분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국가조찬기도회의 일환인 국제오찬기도회(International Luncheon)에 참석 12개국 1500여 명의 VIP를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대한민국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 달라며 호소했다.

소강석 목사는 마크 플레이어(Mark Pryor) 연방 상원의원, 랜디 홀그린(Randy Hultgren) 하원의 소개를 받았으며 무대 앞 객석에는 전 현직 연방 상, 하원 의원들과 세계 각국의 영부인 등 각국 대표들이 배석하고 있었고 그중에는 소강석 목사가 존경하는 전 연방하원의원 김창준 장로, 국회의원 이혜숙, 조배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소강석 목사는 세계 각국의 VIP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앞서 졸았다는 표현을 코믹하게 졸면을 곱게 먹었다면서 그러나, 제가 누굽니까? 제 잠정 중에 하나가 당담한 아닙니까? 잘하던 못하던 간에 힘차게 소리를 지르며, 제스처 해 가면서 준비해간 메시지를 선포했다. 이날 소 목사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는 것이 박수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소강석 목사의 이날 메시지는 소 목사 개인적인 이야기를 서두로 나중에는 남북관계에 대해 성경적인 관점과 세계관을 소재로 평화와 화



목에 대해서 진솔하게 당면한 현실을 풀어내었다. 그러면서 트럼프와 김정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과 수고에 헛되지 않도록 미국과 세계 각국에서 모인 모든 분들에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간절히 부탁했다.

또한 소강석 목사는 비핵화에 대해 설명했다. 북한의 핵시설이 평화의 원천으로 바뀌어질 날이 한반도에 있다고 미국과 여러분의 도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호소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를 이루는 하나의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 목사는 통글리시로 메시지를 전하였지만 객석과 소통이 잘 되어서 박수도 6~7번이나 나오고 곳곳에서는 A-men 소리가 터져 나왔다. 여러 명의 연설자 가운데 이렇게 박수를 많이 받은



Speaker는 소 목사 자신 밖에 없었으며 소감을 피력하고 마무리할 때는 1500명의 세계 각국 VIP로부터 기립박수를 받는 등 큰 역사가 일어났다. 소 목사는 한국에 있는 언론사와 폐친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왔다. 그러면서 소강석 목사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폐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한다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국가조찬기도회에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인식때때 근절, 현대관 노예제 등을 근절시켜줬다면서 미합중국은 신앙인이 세운 나라로서 앞으로 신양인이 이끌어갈 나라임을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교회 생활을 자유스럽게 보장할 것과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데 있어 어떤 경우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 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고 앞으로 그렇게 보장할 것을 약속하자" 객석은 기립박수의 물결로 넘쳐났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되며 뱃속에 있는 태어나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며 그래서 미국이 인간이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며, 그렇지 않는 나라와는 수료를 단절할 정도로 정상적인 인권, 아름다운 인권이 세워지는 나라와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하자 모든 청중들은 감동하여 또 다시 기립박수로서 환호했다.

이날 소강석 목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연방 하원의원 3선을 지낸 김창준 장로, 헤드 테이를 라인에 함께 했으며, 테드 쿠루즈 텍사스 상원의원, 에이미 클로버

샤 미네소타 상원의원, 케빈 크래머 노스 다코타 하원의원 등이 배석했으며, 더불어 오바마 취임식에서 대표 기도했던 최초의 흑인 상원원 목(serate chaplain)인 베리블랙이 함께해서 아주 화기에애한 분위기였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소강석 목사는 이번 미국국가조찬기도회는 제가 International Luncheon의 스피커였을 뿐만 아니라 메인 조찬행사 때 많은 분들과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더욱 좋았다고 했다.

아울러 소강석 목사는 마지막 끝날 때 트럼프 대통령을 상원의원들이 함께 열사안고 기도하는 모습은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나라에서도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는 심경을 피력했다.

한편 소강석 목사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답사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소 목사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수고에 저를 비롯해 해서 한국의 전 국민이 감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또는 "북한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평화의 원천으로 바꾸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하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무척 반가워했고 폼페이오 장관의 요청으로 함께 기념사진을 찍은 후 기쁘게 덕담을 나누었다. 소 목사는 이 외에도 많은 전 현직 VIP들을 만나면서 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귀국했다.

하나님께서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를 들어 쓰셔서 생명의 말씀인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은 분명코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며 소강석 목사가 한국의 국익을 위한 큰 역할을 해주었다고 충분히 믿으며 지저스타임즈 신문과 인터넷방송 JTNTV 직원들과 기자 일동은 기도할 것을 약속한다.

□ 소강석 목사 2월 목양칼럼 -25-

극한목회

‘극한직업’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미 관객수가 1300만을 돌파하면서 역대 흥행작이 탄생하였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시나리오 작가가 우리 교회 배세영 성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연일 계속되는 목회사역과 외부 일정 등으로 심신이 지치고 피곤하였지만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영화의 스토리는 단순합니다. 변변히 범죄자를 한 번 재대로 잡지 못하는 마약반의 다섯 형사들이 국내 최대 마약조직을 소탕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마약 조직이 비밀리에 모이는 장소로 우연히 알게 된 형사들은 근처에 있는 통닭집에서 잠복근무를 하다가 본의 아니게 그 통닭집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사들이 개입한 통닭집이 맛집으로 소문나면서 대박이 난 것입니다. 형사들은 마약 범죄자를 잡는 일은 뒤로하고 연일 밀려오는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냅니다. 장사가 너무 잘되자 잠시 자신들의 신분이 형사인지, 통닭집 종업원인지 헷갈려하며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최고로 악랄한 마약조직 보스들이 회합하는 장소를 알게 되었고 마형사가 전략적으로 잡혀서 4명의 형사들을 분거지로 출동케 합니다. 그래서 다섯 명의 형사들이 수십 명이나 되는 마약조직 직원들과 결투를 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결투로 볼 때는 어수룩하게만 보였던 다섯 형사들이 사실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고수였던 것입니다.

유도 국가대표 선수, 무에타이 동양 챔피언, UDT 특수부대 요원, 야구선수였고 특히 리더인 고관장은 절대로 죽지 않아 줄비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맷

집과 근성이 강한 절대 고수였습니다. 마지막에 보여주는 마약반 다섯 형사들의 통쾌한 격투 장면은 정말 악을 소탕하는 신의 멋진 승리를 보여주면서 관객들로 하여금 저절로 박수와 환호성을 지르게 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지난날의 목회 여정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저도 가락동 23평 지하상가에서 개척 멤버 한 명 없이 처음 교회를 개척하였을 때는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주변에는 SKY대를 졸업한 스펙 좋은 목사님들이 세운 교회가 즐비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제 집사람이 “당신은 서울 스타일이 아니니까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자”고 하였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럴수록 더욱 더 가슴에 소명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였고,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품 교회를 추구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영화에서 아웃사이더로 보였던 다섯 형사들이 극적 대반전을 이룬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민족과 역사를 가슴에 품고 시대적 리더십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선구적 목회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저 혼자 힘으로만 한 것이 아니죠. 마약반 다섯 형사들이 고반장을 중심으로 뿔뿔 뿜으며 팀워크를 이룬 것처럼, 우리 새에덴의 장로님들과 성도들, 교역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팀워크를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춘 사역자들이 점점 최고의 전문가로 발전하여 저를 도운 것입니다. 더욱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혼의 열정도 있었지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마약조직 보스가 고반장에게 “왜 통닭집 주인이 라면서 끝까지 쫓아오느냐?”고 말합니다. 그러자 고반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소상공인을 잘 모르나 본데, 우리 원래 다 목숨 걸고 해!” 이 한 마



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목숨을 거는 극한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전 프리미스 콤플렉스를 건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는 “소강석 목사가 하면 무엇을 하겠느냐. 아마 쓰러지거나 부도가 나고 말 것이다”라는 조소와 회의의 소리가 서울 장안을 나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극한목회의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속력을 내었습니다.

그러다가 개교회만의 대항화를 추구하는 성장주의의 한계를 넘어서 한국교회 생태계 보호와 민족과 역사를 섬기는 목회적 대항교회, 요즘으로 말하면 플랫폼

대항교회, 요즘으로 말하면 플랫폼 다가 시대적 메시지가 되어 요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공감대를 형성하며 흥행의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작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라고 열망하는 무의식의 세계를 자극시키고 억압된 내면의 세계를 웃음과 감동으로 충족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영화는 대중 문화적 감각과 코믹한 풍자, 밀도높은 플롯, 극적 반전과 감동의 구성,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는 이 시대 최고의 걸작인 셈이죠. 저 역시 앞으로도 극한목회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바로 한국교회 생태계를 보호하고 민족과 역사를 섬기는 하나님 이 주신 시대적 소명을 위해서 말입니다.



두루마리

사진작가 이상중 목사

예전에, 아주 오래 전에 문서를 양피에 기록하여 두루마리로 보관했었다. 그것이 오늘까지 남아 전해진다. 오늘은 연기 속에서 그 두루마리에 기록한 성경을 보는 듯 마음에 잔잔한 울림으로 다가온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아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라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풀 길더라' 에스겔 3:2-3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패밀리처치

주일에 배 안 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목사 서명범, 목사 지복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5길 42 원앙마을 부영아파트 116동 206호
H.P 010-8268-0091, 010-3710-9119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오전 11시 오후 2시
수요일 7시, 금요일 저녁 7시
화요일 2시 집회

담임 김선우 목사

인천시 부평구 청천1동 48-161
H.P 010-3499-2441

대한예수교 장로회 홍성제일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주일밤 오후 7시 30분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담임 오종철 목사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46번길 36-8
☎(041)634-0441(사무실) 633-6146(목양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금천시온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새벽예배 6시
수요일예배 저녁 7시30분
금요일예배 저녁 7시30분

담임 배영자 목사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24길 11(2층)홍동
H.P 010-9600-5028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두란노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11시
주일 2부 오후 2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담임 박원근 목사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041)854-3676 H.P010-4320-1507

대한예수교 장로회 벨엘중앙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저녁 9:00

담임 이혜진 목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383-21
☎(032)667-7147 H.P 010-3287-1500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능력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오전 11시
주일오후 7시
수요일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

담임 최순란 목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177 지하 1층(안양동)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별장-1급 ~3급자 환영)

원장 박순중 목사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033)541-0687 H.P 010-7580-1004

강릉산성그리스도의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담임 최낙현 목사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오이골말길58-20
☎(033)655-0691, 0692 H.P 010-6409-0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원중앙교회

주일에 배 안 내
1부 주일 오전 11:00
2부 오후 1:30
주일저녁 오후 7:00

담임 정기환 목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이로75번길 30-5
☎(032)321-9109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의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한경중 사무총장
사도영성신학연구원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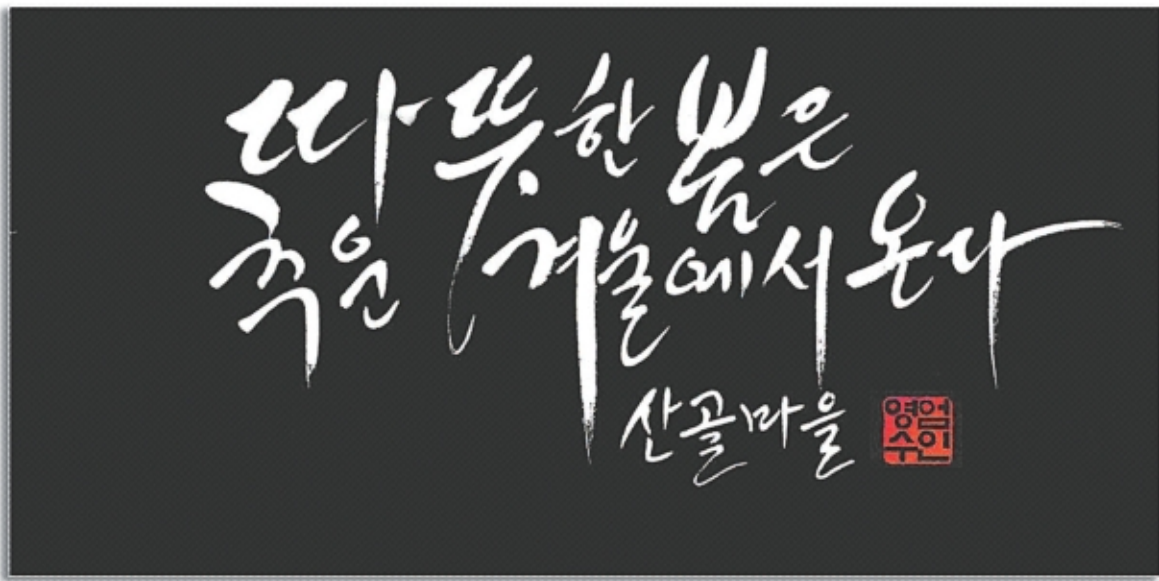
서울시 구로구 개봉3동 370-40
☎(02)583-1955 H.P:010-7585-1955

조에 교정선교회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속(직업훈련소)

담임 유순옥 목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89번길 9-1 102호(안양동)
☎(070)8632-6993 H.P 010-3035-5704



할머니의 교훈

옛날 강원도 산촌의 겨울은 매섭게 추웠다. 그리고 긴 겨울의 추위를 견디고 나면 온 산과 들에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히 피어난다. 뒷동산 묘지 옆에 피어난 양지꽃을 한송이 잘라 주시면서 할머니는 손자인 내게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따뜻한 봄은 겨울에서 오는거야...” 세월이 지나고 내가 성장한 후에야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된다. 힘든 과정을 통

과하고나서야 좋은 날에 내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요즘 문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선수들을 부러워한다. “평생 1달에 100만원 연금도 나온데...”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있었는가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포토칼럼 / 사진작가 엄영수 목사



기도하는 사람

토기장이는 각종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귀하게 쓰일 그릇 할하게 쓰이는 그릇 자주 쓰는 그릇 어찌다 한번 쓸 그릇... 모두가 좋은 그릇입니다. 그래도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부럽기도 합니다. 토기장이가 나를 그렇게 만들고 주인이 그렇게 쓰기를 원하는데 불평과 불만은 없습니다. 그래도 부러운 것만은 숨길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부러움이 내가 사는 날 동안 시험이 되거나 장애가 되어 내가 실족하지 않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3:5

포토칼럼 / 사진작가 도도 이상중 목사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이 뒤숭숭하다. 여기 저기서 갖가지의 소리들이 비명처럼 들려온다. 모두가 무언가에 채워지지 않는 불만과 안타까움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들이다. 어떤 이는 재물에 대한 욕망으로, 어떤 이는 명예와 권력에 대한 배고픔 때문에, 또 다른 이는 애정결핍이나 인기에 굶주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갈증과 배고픔을 해결해 보려고 기를 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갈증과 허기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마치 강물이 주야로 흐르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채워지지 않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불행이라고 여긴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주

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이유가 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허기와 갈증은 세상 사람들의 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바로 의(義)에 대한 갈망을 의미하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갈망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인 것이다. 그 의에 대한 갈망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실 때에만 채워질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이 원하는 배고픔과 굶주림을 내려놓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포토칼럼 / 사진작가 곽원근 목사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3:34~35)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요1서 4:7-8).

포토칼럼 / 사진작가 편집인 정기남 목사

피종진 목사 초청 2월 국내·외 성회



피종진 목사

010-5255-7777

God Bless 3333@gmail.com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

T: 02)3411-9191

F: 02)401-7770

F: 02)3411-9111

- 1(금) 저녁 천안 위대한약속교회(윤재민 목사) ☎ 010-6352-0691
- 3(주)~5(화) 새창원은혜교회(피은혜 목사) ☎ 010-8540-8642
- 7(목) 오후 김포 강림교회(조경숙 목사) ☎ 010-8222-1992
- 7(목)~9(토) 포항 호신교회(박민정 목사) ☎ 010-5873-4564
- 11(월) 오전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Korea(MEC)
- 11(월)~13(수) 고흥 엘림수양관(원장 김지선 목사) ☎(061)833-5157
- 14(목)~16(토) 시흥 사랑의빛교회(남보석 목사) ☎ 010-7220-0733
- 17(주)~20(수) 유구 송원교회(이광현 목사) ☎ 010-5491-5369
- 18(월) 오후 나라사랑 국민연합(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김현수 목사, 사무총장 이준남 목사) 장소: 서울 여전도회관 ☎(02)708-3131
- 20(수) 오전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Korea(MEC) 영어보통연구원 졸업식
- 21(목) 오전 동두천 칠보산기도원(원장 오일목 목사) ☎ 010-3616-0523
- 21(목) 저녁 남서울노회(증경노회장 김영선 목사, 노회장 유용녀 목사) 연합성회
- 22(금) 오전 오산리교회(장기남목사) 기도원(원장 권경환 목사) ☎(031)947-0091
- 주최: 연세대학교 총동문 목회자부흥협의회 (총재 강영선 목사, 대표회장 장형희 목사)
- 22(금) 오후 총회신학교(학장 정민철 목사) 졸업식
- 장소: 서울 연세중앙교회(윤석진 목사) ☎(02)2680-0001
- 제217차 해외성회(217th Overseas Assembly)
- 22(금)~24(주) 미국(U.S.A) 남가주 한영문사랑교회(최요원 목사) ☎(714)900-1283
- 24(주) 저녁 미국(U.S.A) LA지역성회
- 25(월)~27(수) 미국(U.S.A) LA지역성회
- 28(목) 오전 미국(U.S.A) LA지역성회

“민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히 12:2상)

대한예수교 장로회 푸른솔교회

Pinetree Presbyterian Church

2019년도 교회표어:

오직 예수 (히 12:2)



담임목사: 허창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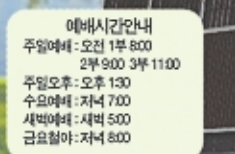
신학박사/교육학박사/예장웨신 총회장

2020 VISION

광주에서 전세계로!!

From Gwangju To all over the world!

부목사: 김미경 협동목사: 유한주, 양연석
시무장로: 공재용, 안중기, 허성준, 함용호
협동장로: 이창수



부설

비율선교신학연구원/사한국성당교육발전협의회

부원총합동조형성당및안교목전문/부원총노인복지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원로 11번안길 47(영무예다움 2차 후문 앞, 수원중 옆)
TEL : (062)953-4620 H,P : 010-8604-6075

대한예수교 장로회 번성교회

2019번성표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행9:31)

번성목표 :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 14:23)

예/배/시/간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저녁 7:30

금요부흥집회 저녁 7:30

새벽 기도회 새벽 5:00



담임목사: 박정균

Rev(D.Min) Park Jeong Kyun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34(갈마동 338-22)

☎교회: 042)523-3191 FAX: 042)523-3090 E-mail: pj2863@hanmail.net

III. 성막 영성과 구원 서정의 5단계 -28-

교회 본질(구원)에 대한 예언

송택규 목사
JTNTV 주필

(지나호에 이어서)
5) 5단계(성막) -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겔 47:5).

이 5단계는 성막에서 마지막 단계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막 단계이다. 성소에 있는 물을 적당하시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고 말씀하신다. 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죄 없다 칭함 받고 거룩해진 자들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전이다. 이제 이 마지막 고지인 성막의 성소에 들어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혼인하는 자이다. 또한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먹고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영생으로 들어가는 자리이다. 이곳은 성부 성자 성령의 모든 권능들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화되어 성령으로 오신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사는 자리이다.

이제 성소에서 팔팔 흘러나오는 생수가 강을 이루었으니 가만있어도 부력에 떠돌아 손만 움직여도 해염을 치게 되었다.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맛보는 자리인 것이다. '다시 일천 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해염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가 내가 이것을 보았느니라 하고나 나를 인도하여 강 가로 들어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겔 47:5-8)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4:13-14)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요 7:38)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맞서서 영의 보좌로부터 나와서'(계 22:1)

4. 믿음의 점검과 심판

하나님은 구원을 향해 가는 길(Direction)을 성막 속에 예비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셨다. 구

원은 '믿습니다' 한 마디로 값싸게 얻는 것이 아니다.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마 7:14)이다. 구원은 그 좁은 길을 통과한 자라야만 믿게 되는 최상의 상급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길을 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그 각각의 과정을 통과할 때마다 각 단계별로 점검하신다. 이때 통과된 자들은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불합격한 자들은 다시 재시험을 볼 기회를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이다. 그 중에는 많은 사람이 통과될 것이나 재중에는 회개와 변화가 없는 경우,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고 후퇴하거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징계를 받는 사람, 자욕으로 떨어지는 자들도 나올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공짜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습게 여김은 큰 오산이다. 말씀과 동행한 믿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약 2:17)이라고 아고보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때그때 권면하시고 부득이하게 징계도 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

5. 결론(지성소) -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겔 47:8-12).

성소가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이라고 한다면, 지성소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를 뜻한다. 즉 '성소'는 하나님 아버지를 도와 일하시는 성령님과 주님의 자리요, '지성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이다.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마지막 때에 개혁되어, 하나님의 영성으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 땅에 이루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라고 하셨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라' 이 물이 흘러 들어가기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겔 47:9-12)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워지고 그분과 동행하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죽은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한 것으로, 히브리서에서 성막의 비밀을 '개혁할 때까지 말려두었다'고 말씀하고 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세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쟁치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배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말려 둔 것이니라'(히 9:8-10)

이제 이 비밀이 벗겨지고 개혁할 때가 되었다. 성막 5단계(구원의 서정, Direction)를 통해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고, 성도들의 영성이 회복되며,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고, 알곡 성도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교회 개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단계, 단계마다 점검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것이다. 이는 징계를 위한 점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격려하고 독려하시기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이다.

성막 제사와 현대 예배

하나님은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설계를 자세히 알려주시고 그대로 지을 것을 명령하셨다(출 25장).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성막 안에 거하시며,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성막 제사를 통하여 그들의 죄를 사해 주고, 죄로 갈라졌던 하나님과의 사이를 회복하신 후 그들을 만백성을 구원하는 거룩한 제사장 족속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 또한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지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체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히 8:1-2)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이 이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좇아 지라 하셨느니라'(히 8:5) 또한 이 성막은 앞으로 있을 교회와 예수의 생애와 예배의식의 예표로 보여주신 그림자였음을 알게 된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배의식만을 다루고자 한다.

(다음호에 계속)

여름 타작마당 6 |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지나호에 이어서)

마 24:11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하셨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고 했다. 여기서 거짓 선지자는 해충에 해당된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는 짐승에 속하고, 여기서 거짓 선지자는 해충에 해당된다. 거짓 선지자는 처처에서 일어난다. 일반교회에서도 나올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원칙은 거짓 선지자가 아니었지만 그러나 거짓 선지자로 변한 것이다. 이들이 해충이다. 그리고 짐승은 어떤 큰 덩어리를 말한다.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

4) 여름의 특징은 아주 무덥고 여름에 고기압과 저기압의 기류가 많고 또 겹겹이 더운 열기로 인하여 심히 무덥고 답답하다. 이처럼 말세에는 온통 답답한 사건과 일들이 많다. 처처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답답한 소식만 들려온다.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정치, 종교, 경제, 사회, 각처에서 들려오는 소식마다 모두 답답하다. 시원한 소식은 없다. 그래서 매일같이 신문과 방송으로 들려오는 소식은 한결같이 답답하기만 하다.

그래서 롬 8:20에 보면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했다. 모든 창조물이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볼시다. 우리가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것들이 신음한다는 것이다. 말을 못하고 서 있는 나무일지라도 너희 인생들을 보니 참으로 답답하다는 것이다. 인생들이 깨달아야 한다고 우리 인생들을 보고 신음한다. 그러므로 땅과 바다, 산과 수목들이, 바람, 파도, 이러한 비인격적인 피조물들이 신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고대한다는 것이다.

인격을 지닌 사람보다 비인격적인 피조물들이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니, 사람보다 더 나은 일이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께서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관심밖에 있다. 그러나 피조계인 산과 바다가 땅과 나무들이 그리고 파도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한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은 인격을 가진 우리들은 만인이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돈이 있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는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담후 3:1에서 '사람들이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고 했다. 어렵고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했다. 창 25:29에서 '들어서 즉

세상에서 돌아온 예서처럼 심히 피곤하고 곤비한 때이다. 그저 피곤하고 배고프다. 그래서 배가 고프고 곤비한 예서는 장자의 명분을 아주 쉽게 팔아버린다. 마지막 때에 예서와 같은 신자들은 주의 일이 피곤하다고 해서 신앙을 쉽게 포기하고, 직분까지도 쉽게 포기하고, 던져버린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팔아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 문제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피곤하고 지쳐서 신앙을 직분을 팔아버린 그릇 때문에 쉽게 던져버린다.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시민권을 포기해 버리는 예서와 같은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보통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얼마 전까지는 말려진 직분을 잘 감당할 것 같은데, 마지막에 와서는 그 직분을 팔아버리고 만다. 여러분! 예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 먹는다. 예수를 팔면 그러한 사람은 이미 천국과는 팔방이 다. 그 인생은 멸망이다. 그래서 여름은 아주 배가 고프고 곤비한 때에 그 붉은 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를 팔아버렸지 않는가.

5) 여름의 특징은? '사람들마다 욕을 이기지 못한다.'

너무도 찜통더위를 만나고 보니, 견딜 수 없어서 산으로 바다로, 시원한 곳을 찾아 피서를 간다. 그리고 마음껏 벌거벗고 뛰고 논다. 아주 짧은 옷을 걸치고 뛰어들는다. 육체의 노출이 심한 사람들은 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다. 여름에는 감추어진 것들이 그대로 노출이 된다. 아주 심하게 자신의 욕이 노출된다. 자신의 욕을 그렇게도 노출 시키면서도 부끄럽다는 양심이 들지 않는다. 욕을 못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남들이 보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편리한대로 벌거벗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여름에 사고가 제일 많다. 여름에 산과 바다에서 피서를 즐기다가 성폭력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른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밝혀진 뉴스보다도 밝혀지지 않는 사건들이 더 많다는 것이다. 밝히나 낮이나 욕을 다루지 못해서 노출을 시키는 것이요, 그래서 그

정기남 목사
편집인

로 인하여 성폭력 사건과 강력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처처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노는 일들이 많아졌다. 그저 조금만 참으면 될 일도 조금하게 서툴러서 시집가고 장가를 간다. 지금 못가면 언제 가느냐는 것이다. 결혼을 이미 하신 분들은 참으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미혼자들은 급하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일 오실지라도 결혼은 해아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남자가 여자는 한번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배우자를 신앙은 식어지고, 육신의 사람이 되고 만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모태의 신앙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게 되면 믿음은 없어지고 육적 신자가 되기 쉽다는 말이다. 오늘 이 시대에 각 신문과 잡지 방송을 통해 들려오는 사건들을 접해보면 참으로 더럽고 추한 일들과 사건들이 많다.

오늘 우리는 자신은 물론 자녀들을 위하여 들어야 할 때다. 남자가 한번 짐승의 탈을 쓰고 나면 나이를 보지 않는다. 첫머리 어린 것도 그러한 행위를 하는 파렴치한 시대이다. 그런가 하면 사탕하는 애인까지도 이용해 먹고 몇 톨의 돈을 받고 유흥가나 사탕가에 팔아 버리는 페륜범들이 많다. 심지어는 자기 부인까지도 윤락 행위를 시켜서 돈을 뜯어내는 짐승이 있다. 참으로 더럽고 추한 세대이다. 짐승을 데리고 살면 자신도 죽고 결국 육적인 신자로 살다가 저주받아 죽고 마는 날이 오고야 만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고 말씀하셨다.

오늘 이 시대는 부모가 자식들을 위하여 울어야 할 때이다. 왜? 때가 너무도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식을 위하여 마음을 찢는 기도가 필요할 때이다. 오늘 이 시대는 영적인 것을 아주 적고, 육적인 욕의 세상이 되어버린 여름이 되었다. 뱀후 2:8에 보면 '뜻'이 고통당했다.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이니라'고 했다. 한 마디로 소돔성 안에는 날마다 불법적인 사람들뿐이요 그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들을 보고 들은 뜻은 고통만 더했을 뿐이다. 마음이 너무도 상했다. 그러나 뜻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지저스타임즈는 광고와 구독료로 신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저스타임즈 신문 애독자 여러분께

본지는 구독료 및 광고료로 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와 가정 일터에서도 부흥과 발전,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전 직원일동이 기도드립니다. 신문은 애독자님들의 구독료 및 선교비, 광고료 또는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저스타임즈는 올 10월이면 창간 13주년을 맞이합니다. 본지는 인터넷방송을 통하여 국내외로 복음과 교회소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http://www.jtntv.kr> & <http://www.cpj.kr> 두 곳에서 jtntv로 또는 cpj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교계소식과 각 교회의 주일예배 설교를 영상을 통해 전파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소망합니다.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다 07837(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실천합니다.)

지저스타임즈 대표 정기남 목사

· 후원 계좌 하나 : 758-910292-36807 정기남, 농협 : 455030-56-005509 정기남, 우체국 : 310029-02-152769 정기남

1년 구독료 50,000원, 신문 방송을 후원하실 분은 1구좌 1만원부터~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주소와 전화 번호를 본사 대표 010-5468-6574(정기남 목사)로 문자주시면 신문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지저스타임즈

THE Jesus Times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TEL 070)8230-0034, FAX검용 032)672-3031, H.P 010)5468-6574, E-mail : jtntvcpj@naver.com

2019년도 전기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회지도자전문과정 입학안내

※ 특전

- 1.총정원의 중서
- 2.장학혜택(성적 및 공로자)
- 3.연세총신 신대원 2년과정으로 인정함
- 4.연세총신과 연계교육후 연세총회에서 목사안수함

※ 입학안내

- 모집기간 / 2019년 1월 ~ 3월
- 개강일 / 2019년 3월 14일(목) 오전 10시(주간) 오후 6시(야간)
- 교육대상 / 평신도지도자반 : 세례교인 이상
교역자반 : 신학생, 전도사 강도사 목사(사모)
- 교육기간 / 평신도지도자반 : 2년 4학기
교역자반 : 2년 4학기(단, 목사는 1년 2학기)
- 교육시간 / 주간 : 매주 목(오전 10:00~오후 3:00)
야간 : 매주 목(오후 6:00~오후 9:30)
- 교육비용 / 45만원
- 등록안내 / 국민은행 220401-04-015162
(예금주: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 교수진 / 김영욱 총장 외 과목별 유명 전문강사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증명사진2매, 가족관계증명서
- 교육장소 / 인천분원 (학기2회/본교에서 강의)
인천시 남동구 구월로 119(진영빌딩2층)
(인천시청후문, 인천시청 지하철3번출구 20미터)
- 접수처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학지원팀
12508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경강로 1276
인천분원 / 인천시 남동구 구월로 119(진영빌딩 201호)
- 문의처 / 교학지원팀 : 031-770-7822-3
팩스 031-770-7828
본원사무국 : 032-421-0651, 010-3641-0685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평생교육원 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

합동총회신학 · 신대원 졸업식

믿음의 결단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



합동총회신학회는 지난 2월 14일 (목) 오전 11시 30분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합동총회 신학·신대원 2018학년도 대학부 39회, 신대원 36회 졸업식을 가졌다. 졸업식은 1부 예배와 2부 학위 및 졸업장 수여식으로 진행되었다.

제1부 예배는 총무처장 김지명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어 최영영 목사(수원신학회장)가 기도, 류기형 목사(총정신학회장)가 성경을 봉독하고, 졸업생들의 대선배인 유동술 목사(돌로스153찬양단장)가 특송으로 영광을 돌렸다.

총회장 전종희 목사(합동개혁총회)는 "변화된 자리"란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첫째, 예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의 자리에 있어야 하며, 둘째로,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다고 강조하며 우리도 사랑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결단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선포하였다.

제2부는 학술원장 이희수 목사의 인도로 시작하여 모두가 교가

를 제창하고, 학술원장의 학사보고에 이어 총장 오광민 목사가 대학원 및 대학부 졸업생들에게 졸업장 및 학위를 수여하였다. 총회와 신학교에서 졸업생들에게 각 종 사상을 하였다.

총장 오광민 목사는 훈시를 통하여 졸업생들에게 "주의 종은 십자가 눈물 없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주의 종으로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 세상이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 정결한 믿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전심을 다하여 하

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모든 것이 복음이 되게 하라"고 당부하였다.

권면에 선 윤선중 목사(직전총회)는 "주의 종은 지배자가 아니라 지도자로 서야 한다. 지도자는 나를 죽여야 한다. 지도자는 자존감, 자신감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축사에 선 정수현 목사(부총회장)는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축하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참대배할 것을 믿고 축하하며,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을 생각하니 축하한다"고 전했다. 신광철 목사(총회총무)는 졸업생들과 함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함께 바라보는 동행과 동행이 됨을 축하한다"고 하였다.

합동총회신학·신대원(총장 오광민 박사)은 서울 본교(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85)를 비롯하여 대전, 원주, 충청, 수원, 일산, 전남 등에 분교를 두고 선지생도들을 이끌어 가고 있다. 2019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사명을 감당할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한다.

합동총회신학·신대원(www.hdtcs.kr / 02-883-3886)

안산 / 백운성 기자

국제에녹부흥사회 주관 2019년 신년축복부흥성회 가져



국제에녹부흥사회(대표회장 광영민 목사)는 지난 2월 10일(월) 저녁~13일(수) 저녁까지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삼하 6:21)는 주제로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에 자리한 "하늘민족기도원"(원장 임수연 목사)에서 2019년 신년축복부흥성회를 개최하고 매시간 강사들의 능력 있는 말씀선교로 뜨거웠으며 은혜의 강수가 넘치는 가운데 마쳤다.

하늘민족기도원(원장 임수연 목사)에서 국제에녹부흥사회 주관으로 열린 연합성회는 첫날부터 매시간 예배위원은 상임회장 이선한 목사, 김희영 목사, 김선우 목사, 이현주 목사, 모성훈 목사, 김수자 목사, 강사단장 정시라 목사, 회원 이영미 목사, 우사탕 목사, 실무회장 김지연 목사 등이 예배인도, 찬양, 기도 순서를 맡았으며, 저녁 강사는 주일 저녁 고문 정기남 목사(지

저스타임즈 발행인), 월요일 저녁 상임회장 이선한 목사, 화요일 저녁 고문 이현호 목사, 수요일 저녁 대표회장 광영민 목사 등이며, 매시간 낮 강사는 월요일 오후 실무회장 김지연 목사, 화요일 오후 공동회장 이현주 목사, 수요일 오후 회원 이영미 목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꾸미오리 단장 김창숙 목사 외 단원의 아름다운 찬양 위임으로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제3회 VCM(베트남기독교전도)교단 신학교 졸업식 가져

화흥교회 헌당 및 선교관 개관식!



베트남 봉마우 화흥교회가 지난 1월 22일 제3회 VCM(베트남기독교전도) 교단신학교 졸업식 및 화흥교회 헌당식을 갖고 타이거박 선교관 개관식이 진행되었다. VCM(베트남기독교전도)교단은 2007년 정부 승인을 받았으며, 다낭에 총회가 있고, 하노이에 본부가 있다.

교단에서는 총 54개 종족 중에 현재 29개의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소수 종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를 계속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제1회부터 VCM(베트남기독교전도)교단 신학교와 교회들을 지원해 오고 있는 좋은교회 박요셉 목사(VCM신학교 한국지부 총장)와 청신제일교회 박영준 목사(VCM신학교 한국지부 부총장)는 지금까지 3개의 선교관 건물을 지어주고, 지금 4개째 선교사가 머물 선교관을 지어주고 있다. 여기에 박영찬 선교사가 많은 중요한 역할을 지 금까지 감당해 오고 있다.

이번 제3회 신학교 졸업식에도 박요셉 목사, 박영준 목사, 박영찬

선교사는 졸업식에 참석하여 7명의 졸업생들에게 금일봉을 전달하고, 화흥교회 헌당식과 타이거박 선교사 선교관 개관식에 참석하여 축하했다. 박영준 목사(청신제일교회)는 졸업식과 헌당식 그리고 선교관 개관식을 참석한 소감에서 "참으로 감동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사역은 발전해야 되며 또 늘 승리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계속 발전해서 이것이 발판이 되어 우리나라의 통합교단 같은 VCM(베트남기독교전도)교단, 그리고 우리나라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같은 화흥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번 VCM(베트남기독교전도)교단 신학교를 졸업한 7명의 신학생들 가운데는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다. 큰 의미가 있는 것은 7명 모두가 다 종족이 다르다는 것이다. 7개국의 나라에서 온 신학교 졸업생들이 나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가장 먼 라오스에서 온 "Pa Bon"이란 신학생(목사)은 라오스의 복음화를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결단하며 졸업식에 임하였다.

이번 졸업식과 화흥교회 헌당 및 타이거 박 선교사 선교관 개관식에 참석한 박요셉 목사, 박영준 목사는, 박영찬 선교사, 사모, 장로, 권사 등 모두가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었다고 입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또한 이번 VCM(베트남기독교전도)교단 신학교 졸업식에는 이곳 주석과 경찰서장이 함께 참석하여 앞으로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을 약속했으며 자리를 빛내 주었다.

안산에서 백운성 기자

대한기독교사진가협회, 2019년 신년하례회 가져



대한기독교사진가협회(이하·대기협)는 지난날 21일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갈마로에 위치한 엄영수 목사(대광교회 원로목사) 사택에서 전국에서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1부 2019년 신년감사예배를 드리고 2부 하례회가 진행되는 등 덕담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자리가 되었다.

목사 장로 권사 평신도로 구성

된 대한기독교사진가협회 모임이다. 이날 1부 예배에 대기협 이사장 장기태 장로가 기도를, 윤한옥 목사(고문)가 사도행전 22:3절을 중심으로 "뜨거운 사랑"이란 제목의 말씀을 뜨겁게 전하면서, 사람의 몸이, 하나님 사랑과 우리의 열심히 식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죽어가고 인생에 대한 어떤 열정이 식어지면 인생이 죽어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열정이 충만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목사는 또 함께 사진과 영상으로 사역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하고 "2019년 새해에는 회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란다"며 격려했다.

이어 고문 엄영수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회무에서 엄 목사는 강원도 홍천 고향에 들

어오니 공기가 너무 좋아서 건강도 좋아졌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엄 목사는 대기협 식구들이 강원도 오시면 언제든지 쉬어 가길 바란다면서 지난번 대기협 총회가 끝난 후 첫 번째 모임에 많은분들이 왔다면 2019년도 출발이 좋고 희망이 보인다면서 앞으로 사진가협회가 한국 교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협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안건 토의에서 해외 출사, 및 전국모임을 임원들에게 위임했다. 이어 김종심 권사(사무국장)는 "함께 해준 모든회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가 있은 후 회원들 각자가 가져온 선물을 한군데 모아놓고 추첨을 통해 선물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날 윤종성(여의도 윤 스튜디오 대표, 코리아포토클럽.com)대표의 단체사진 촬영을 끝으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각자 섬기는 교회와 가정으로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당뇨나 혈압, B형간염으로 고생하시는 목사님, 장로님, 의료인들에게 희소식!!!

당뇨나 고혈압, 아토피 등의 난치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90일간 순수 국산 마늘을 발효시켜 만든 '알리오' 제품을 권해 드립니다. 수많은 목사님 & 장로님들 그리고 의료인들이 알리오를 복용한 결과 >> 혈압과 당뇨 등 여러 난치병들에 대한 마늘의 효능 효과가 기존 논문의 발표 대로 분명한 사실임이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본 제품을 9개월째 복용하고 계신 주품 교회 최성은 목사님은 "지금 까지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제품을 복용해 봤지만 알리오 만큼 좋은 제품은 없었다. 알리오가 여러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 지지 못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고 하시며 주변사람들에게 알리오를 통해 직접 경험하신 효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신다.

이미 마늘의 효과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여러 기관 및 학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 마늘이 인체에 미치는 주요 작용 ★

- 항암작용 및 예방
- 강정 강장에 효과
- 고혈압 예방
- 노화예방
- 피부노화방지
- 당뇨병 치유
- 간기능 활성화
- 소화작용 촉진
- 면역력 강화
- 혈행개선
- 고지혈, 항산화작용

[FDA 자료와 KBS 생노병사의 방영 자료 요약]

암, 난치병 등 질병 치료에 대한 마늘의 효능은 이미 알고 있지만 일상에서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을 정도로 마늘을 섭취 하기란 쉽지 않다. (주)지엔에이치바이오의 '알리오'는 다량의(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준치) 살아 있는 국내산 생마늘을 그대로 발효시킨 제품이며 천연미생물을 이용함으로써 마늘 특유의 냄새와 맛을 제거하여 복용에 거부감이 없으며 대신 흡수력과 영양성분은 증폭시키는데 성공한 제품이다. 한편 (주)지엔에이치바이오에서는 중부대학교 바이오융합학부 한방건강관리학과 박상태 교수(주)지엔에이치 바이오가 보유하고 특허 "마늘 발효물을 포함하는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제10-1608502호,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균주를 이용한 마늘 발효물 및 이의 제조방법(등록) 10-20140174628"

(주)지엔에이치 바이오가 보유하고 특허 "마늘 발효물을 포함하는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제10-1608502호,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균주를 이용한 마늘 발효물 및 이의 제조방법(등록) 10-20140174628"

*마늘 발효액 '알리오' 경희대학교 피부생명공학센터 알리오 연구 결과보고서 (2018. 7. 11) *

- 발효액 시료에 대한 면역활성을 평가한 결과 농도 - 의존적인 우수한 활성이 관찰되었음.
- 마우스를 이용한 복강 마크로파지에 농도 - 의존적인 경향으로 활성을 증진시켰음.
- 장관면역 활성기 농도-의존적인 경향으로 활성을 증진시켰음.
- 마우스를 이용한 NK세포(자연살해세포) 활성에 농도 - 의존적인 경향으로 활성을 증진시켰음.
- 결론적으로 알리오 마늘 발효액은 선천면역 및 적응면역 세포를 자극하여 면역활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70 한국 프라자 403호 Tel : 031-717-0015





2019 주님과 함께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 방송 사장
- 라이프드림이전 총재
- 기독교방송 칼럼리스트
- 백성TV 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제 목 : 신앙생활이란?

성경 : 고전 1:1-9 찬송가 170장

사도바울의 편지 특징은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밝힌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종 된 나는~' 이라고 쓴다. 사도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종임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지면 힘은 들지만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불러오면 목숨 걸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죽는 자리까지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까지 연결되면 복된 자리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 목 : 신앙생활이란?

성경 : 고전 1:1-9 찬송가 423장

고린도 지역은 바다사이의 위치한 상업과 무역도시입니다. 그래서 죄악과 음란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니다. 1절에 나오는 소스데네는 고린도 지역의 화당장이며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자입니다. 소스데네는 목숨 걸고 사도바울을 협력사역을 했습니다. 열을 보면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명의 길이 있습니다. 더딜 수 있지만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주님 만나고 주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하에 거하시고 재림신앙의 믿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목 : 같이하러

성경 : 고전 1:10-17

찬송가 435장

바울은 10절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합니다. 온전히 합하라는 뜻은 나누어진 것을 합쳐 온전히 하나로 만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교

회에서 마음이 하나 되어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 이룬 지체임을 기억하십시오.

제 목 : 복음을 위한 배려

성경 : 고전 9:15-27 찬송가 85장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 지역은 항구도시입니다. 항구도시의 특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왔다가 잠깐 머물다 가는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영과 육이 형용어인 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보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고전9:22) 가장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복음을 들고 가야 합니다. 내가 저주는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내가 참아야 하는 이유도 복음 때문입니다. 참는 이유를 알면 참을 수 있습니다.

제 목 : 복음을 위한 배려

성경 : 고전 9:15-27 찬송가 85장

복음을 위하여 눈높이를 맞추십시오. 예수님이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눈높이에 맞는 자리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배려입니다. 27절에 말씀처럼 나를 쳐서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볼 줄 알고 나를 다스릴 줄 알면 승리합니다. 저주는 것도 복음을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천국까지 하늘 삼급 바라보면서 올곧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고전9:27).

제 목 : 피하라

성경 : 고전 10:1-13 찬송가 301장

본문은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짓고 있는 죄악을 알게 하고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바울은 우상숭배를 피하라고 강조합니다. 적당히 믿는 것은 안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철저히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물렸던 백성처럼 주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음행과 원망을 계속 하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선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전10:13).

제 목 : 죽은 후에 심판

성경 : 히 9:27-28 찬송가 492장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법입니다. 어느 인간은 자신들의 교주가 안 죽는다고 꾀한 합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위대해도 별 것 아닙니다. 오늘 할 수 있을 때 감사하며 삽시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9:27).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 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준비하십시오.

제 목 : 가장 위대한 일

성경 : 행 10:1-8 찬송가 364장

기도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 위대한 기도가 없으니 사단이 판을칩니다. 기도 없는 능력은 없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가 조직은 잘 되어 있으나 기도가 없습니다. 헌금과 봉사는 많으나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찬양과 설교는 있는데 기도가 없으면 문제입니다. 마지막 때 기도가 힘들어집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구제하며 하나님을 두려하고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주의 사자를 못 뵈었을 것입니다. 진짜 기도자는 순종자입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 목 : 중보자 예수

성경 : 눅 22:31-32 찬송가 348장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사단은 제자들을 깨물려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리라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 그들을 청구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때로는 절망적으로 흔들리지만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종교생활은 쉽지만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쓰러지려 했던 베드로가 중보기도로 일어났습니다. 영적실체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까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니" (눅22:31~32).

제 목 : 오직 복음

성경 : 갈 1:6-10 찬송가 505장

7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합니다. 교회에는 복음으로 모였습니니다. 모인 목적은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은 갈라디아 교회에 만연한 유대주의적 복음 즉,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사상을 말합니다. 복음 안에서 순종하고 복음 외에는 다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제 목 :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성경 : 롬 6:15-23 찬송가 507장

바울은 우리들이 어느 쪽에 순종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16절 말씀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고 질문합니다.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은 의에 이릅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노릇을 하니까? 내가 어느 쪽에 종인가를 알려면 나의 삶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 복음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목 : 가짜를 알기 위하여

성경 : 벰전 5:7 찬송가 354장

위조지폐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진짜지폐만 볼 수 있게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올바르게 알면 가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기를 보려면 기도와 예배가 살았는가를 보면 됩니다. 누가복음18장 8절 말씀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할 때 믿음은 기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열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열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벰전5:7).

제 목 : 하나님 나라

성경 : 마 6:33 찬송가 438장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것 7가지

편집인 정가남 목사

1. 하나님께는 교만한 눈을 미워하십니다. (잠 6:16~19) '여호와께 미워하는 것은 곧 그 마음에 살아있는 것이 육질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리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잠 6:16)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 파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잠 18:12) 교만한 멸망의 선포이다' 라고 했다.
2. 하나님은 거짓 된 혀를 미워하십니다. (잠 6:17). 잠 8:13 '여호와께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형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잠 12:22)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히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심을 받느니라' (잠 12:9)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하는 자는 곧 망할 뿐이니라' (잠 20:9)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네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잠 20:9)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네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잠 20:9)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네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잠 20:9)
3. 하나님은 무직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미워하십니다. (잠 6:17) '무직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고 했다. 가인은 무직한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 7개의 발을 받았다. (창 4장, 신 19:10, 사 1:15, 사 59:3, 7.)
4. 하나님은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을 미워하십니다. (잠 6:18) 잠 15:26 '악한 꾀는 여호와께 미워하는 것이다' (잠 15:11) '악한 자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자의 정직한 집은 흥하리라' (잠 15:17)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잠 15:26)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로써 가는 것이 아니라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잠 15:26)
5. 하나님은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미워하십니다. (잠 6:18) 잠 15:9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잠 3:33) '악인의 길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 곧 그 마음에 살아있는 것이 육질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리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잠 6:16)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 파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잠 18:12) 교만한 멸망의 선포이다' 라고 했다.
6. 하나님은 망령된 증언을 미워하십니다. (잠 6:19) 잠 19:5 '거짓 증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잠 25:18) '그 아랫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는 망망이요 칼이요 투창이요 화살이요' (잠 25:18) '거짓 증언은 패망하리니와 확실한 증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잠 25:18)
7. 하나님은 형제 사이를 이간 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잠 6:19) 잠 17:15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잠 17:15) '악인의 재물을 미워하느니라' (잠 15:8) '악인의 재물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또한 하나님은 자기들을 위해서 우상 세우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신 16:22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잠 16:22)

소진우 목사 2017년-2019년 성회일정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 : (02) 934-1232(대)

· 열방부흥선교회의 총재

· 기독교방송 칼럼리스트

· CBS TV 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JTN TV, 신문 칼럼리스트

2017년 2월

- 3 한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 6-9 감람산기도원(이복남 원장)
- 13-17 선교지메나
- 20-22 초대종교교회(이복남 목사)
- 27-1 중동교회(서종표 목사)

2017년 3월

- 6-10 필리핀 예복교회 헌당예배 및 선교지 방문

봄철 축복 대 심방기간

2017년 4월

- 3-5 홍주교회(고영석 목사)
- 6 오산리금기(도원)장(원장)
- 9 천보산기(도원)장(원장)
- 10-13 오정성교회(이주형 목사)
- 17-18 정기노회
- 18-20 양배교회(정진수 목사)
- 24-27 천보산기(도원)장(원장)

2017년 5월

- 7 천보산기(도원)장(원장)
- 8-12 내팔선교회(방문)
- 15-17 주영광교회(지재문 목사)
- 21-24 사랑빛교회(오성민 목사)
- 29-31 초대교회(한준호 목사)

2017년 6월

- 4 천보산기(도원)장(원장)
- 4-8 빛과소금교회(송영만 목사)
- 12-16 선교지(사역자)메나
- 18-30 본교회 2주연속심방대성회

2017년 7월

- 2 천보산기(도원)장(원장)
- 3-6 광천수양원(방문) (원장)
- 10-12 사랑의교회(고정국 목사)
- 17-19 모리아교회(조선의 목사)
- 24-28 선교지(사역자)메나
- 30 천보산기(도원)장(원장)

2017년 8월

- 3 안양감교회(도원)장(원장)
- 7-10 임마누엘수양원(이수영 원장)
- 11 한일산기(도원)장(원장)
- 14-17 광운기(도원)장(원장)
- 21-24 감람산기(도원)장(원장)
- 27 천보산기(도원)장(원장)
- 28-31 천문기(도원)장(원장)

2017년 9월

- 4-8 은리복음교회(이수원)장(원장)
- 11-14 교단총회

2017년 10월

- 2-5 추서주교
- 9-10 정기노회
- 16-18 주사리교회(조연오 목사)
- 22 천보산기(도원)장(원장)
- 30-4 인도사역자(방문)주간

2017년 11월

- 5-8 주안중앙교회(박홍순 목사)
- 13-15 동계부흥성회(예복교회)
- 19 천보산기(도원)장(원장)
- 20-22 열린중앙교회(신동홍 목사)
- 27-1 필리핀 사역자 컨퍼런스

2017년 12월

- 4-6 삼물교회(고정익)
- 11-14 천보산기(도원)장(원장)
- 18-21 관천예복교회(노영수 목사)
- 26-29 송구영신을 위한 산상기도

2018년 1월

- 1-3 양평지역연합성회(회장 홍성장 목사)
- 8-10 성대교회(황인국 목사)

2018년 2월

- 14 은진교회(소치영 목사)
- 14 천보산기(도원)장(원장)
- 15-18 배방중앙교회(김영남 원장)
- 21-24 안양성문교회(한준호 목사)
- 29-1 광운기(도원)장(원장)

2018년 3월

- 5-8 감람산기(도원)장(원장)
- 11 천보산기(도원)장(원장)
- 12-17 설 주간
- 19-21 점촌교회(김영수 목사)
- 26-28 삼육교회(조원환 목사)

2018년 4월

- 1월 안양감교회(신금기)장(원장)
- 4월 천보산기(도원)장(원장)
- 3월은 봄철 축복 대 심방의 달
- 1월 천보산기(도원)장(원장)
- 2월-4월 광평성교회(조재용 목사)
- 9월-11월 산동교회(한성길 목사)
- 16월-26월 예복교회부흥회(소진우 목사)
- 29월-6월 3월 천보산기(도원)장(원장)

2018년 5월

- 1월 천보산기(도원)장(원장)
- 안양감교회(신금기)장(원장)

2018년 6월

- 3 천보산기(도원)장(원장)
- 6-8 한일산기(도원)장(원장)
- 13-16 광운기(도원)장(원장)
- 19 천보산기(도원)장(원장)
- 20-23 감람산기(도원)장(원장)
- 27-30 천문기(도원)장(원장)

2018년 7월은 안식절

2018년 8월

- 3 한일산기(도원)장(원장)
- 6-8 삼물교회(고정익 목사)
- 9-10 행복으로 가는교회(최석규 목사)
- 13-16 광운기(도원)장(원장)
- 19 천보산기(도원)장(원장)
- 20-23 감람산기(도원)장(원장)
- 27-30 천문기(도원)장(원장)

2018년 9월

- 2-5 운정사(고정익)장(원장)
- 10-13 교단총회
- 13 평화의 동산(최종진 목사)
- 16 천보산기(도원)장(원장)
- 17-20 연대연합교회(박승현 목사)
- 24-28 선교지(방문)주간

2018년 10월

- 1-4 다나엘교회(김명수 목사)
- 8-10 목심교회(유종수 목사)
- 12 오산리금기(도원)장(원장)
- 14 천보산기(도원)장(원장)
- 15-17 정기노회
- 18-19 성소기(도원)장(원장)
- 21-25 은진교회(소치영 목사)
- 26 양평기(도원)장(원장)
- 29-2 선교연합집회

2018년 11월

- 4 천보산기(도원)장(원장)
- 5-7 행복이넘치는교회(이영진 목사)
- 8 안양감교회(신금기)장(원장)
- 12-14 영명교회(송준호 목사)
- 15 보라비전교회(구경도 목사)
- 19-21 경천교회(원장 목사)
- 26-28 제천예복교회(김대중 목사)

2018년 12월

- 2 천보산기(도원)장(원장)
- 3-5 삼물교회(고정익 목사)
- 10-13 천보산기(도원)장(원장)
- 16-21 본교회부흥회
- 25-29 송구영신을 위한 산상기도

2019년 1월

- 1-3 경기도동부지역연합성회(회장 홍성장 목사)
- 3 한일산기(도원)장(원장)
- 4-7 감람산기(도원)장(원장)
- 5 임마누엘수양원(이수영 원장)
- 6-9 주영광교회(지재문 목사)
- 14-17 광운기(도원)장(원장)
- 21-23 평강교회(정규 목사)
- 28-1 선교지(방문)

2019년 2월

- 3 천보산기(도원)장(원장)
- 4-7 감람산기(도원)장(원장)
- 11-14 임마누엘수양원(이수영 원장)
- 17-20 부아기(도원)장(원장)
- 25-27 보라비전교회(구경도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원원로40 (장암동)

사)한기보협 제34회 정기총회 열어

3.1절 유관순기념관과 아우내장터 등 유적지 탐방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총재 정서영 목사, 대표회장 한창환 장로, 이하 신방협)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관악구 남현동 소재 본 협회 총재실에서 2019 신년하례회 예배를 드렸다.

한창환 대표회장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사회자 목도로 시작, 상임회장 유영덕 목사의 대표기도, 회계 김정숙 목사의 성경봉독(단 3:14-18), 사무국장 안종욱 목사의 특송, 총재 정서영 목사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정서영 총재는 “현재 기독교계는 전쟁직후 전후 입지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환경속에서 가족들 눈치보며 날라온 한용훈의 성미주머니로 연명하던 지난 속에서 거룩한 신앙으로 사회로 부터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작금에는 대형교회 많은 예산으로 부와 명예를 쟁취하며 사회 봉사 보다는 세상가치를 추구하는 종교지도자의 최소한 기대치에도 못미치는 세속적 모습으로 인하여 종교지도자와 회교를 외면하고 떠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국교회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다. WCC 등장으로 종교다원주의 즉 예수십자가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많은 목회자들의 비성경적 비전리 때문에 발잡을 설친다”고 심히 개탄했다.

이어진 특별기도에서 1)국가 안정과 통일을 위하여 장대봉 목사(예장보수합동 총회장), 2)한국교회와 협의회(총회, 단제)를 위하여 홍정종 목사(대한자유교회 감목)가 나섰으며, 헌금송에 예장보수합동 박정국 목사, 헌금기도에 박정국 목사(대한예수교주교총회), 대표회장 한창환 목사는 김승현 김주상 김철웅 김해자 박승주

목사에게 각각 가입교단장 패를 증정하고, 김철호 목영자 이유식 한치호 홍정종 목사 등에게 선임교단장 패를 증정했다. 이 자리에서 한창환 대표회장은 인사의 말씀을 통해 “취임 1년 동안 본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을 갖고 일해 왔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자가 볼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듯이 미숙한 부분을 교훈 삼아, 올 한해도 맡겨진 일에 더욱 열심을 내겠다”며 회원교단의 많은 협력을 당부하고, 2020년은 본 협의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뜻 있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며 위하여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어진 총회장 장 한국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유관순 열사는 어려서 자연스럽게 믿음생활을 했고, 선교사가 세운 학교인 공주 영명학교에 입학해 2년을 공부하며 신앙의 기초를 닦았다”며, “이화학당에서도 유관순은 매일 기도와 예배로 신실한 신앙생활을 했다. 아우내장터 독립운동에서 그녀의 부모를 비롯한 19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당했다. 유관순 열사는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고, 이듬해인 1920년 10월 12일 순국했다. 이 역사적 장소에서 목회자들이 그 정신을 되새기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한편 협의회가 방문하기로 한 충남 천안시 병천면 용두리에 있는 매봉교회는 유관순이 어린 시절 다녔고, 고향에 내려와 독립운

동을 하며 체포되기 전까지 다닌 교회이다. 매봉교회는 1908년 설립됐으나, 1919년 만세운동의 중심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인해 일제의 탄압을 받게 됐고, 결국 1923년 문을 닫았다. 1962년 이화여고와 지령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학교로부터 원조를 받아 1967년 새롭게 매봉교회가 재건되었다. 매봉교회 옆에 있는 유관순 생가는 1991년 복원한 것으로 사적 230호로 지정돼 있다.

사진 출처... 유관순 생가 주변 전경 독립기념관 홈페이지.jpg
“유관순 생가 및 매봉교회 전경(출처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자료에서)”

신방협. 2019 신년하례회 개최

신앙인은 오직 말씀속 진리로 어떠한 상황속에서도 신앙의 가치관이 불변해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신문화보수협회(총재 정서영 목사, 대표회장 한창환 장로, 이하 신방협)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관악구 남현동 소재 본 협회 총재실에서 2019 신년하례회 예배를 드렸다.

한창환 대표회장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사회자 목도로 시작, 상임회장 유영덕 목사의 대표기도, 회계 김정숙 목사의 성경봉독(단 3:14-18), 사무국장 안종욱 목사의 특송, 총재 정서영 목사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정서영 총재는 “현재 기독교계는 전쟁직후 전후 입지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환경속에서 가족들 눈치보며 날라온 한용훈의 성미주머니로 연명하던 지난 속에서 거룩한 신앙으로 사회로 부터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작금에는 대형교회 많은 예산으로 부와 명예를 쟁취하며 사회 봉사 보다는 세상가치를 추구하는 종교지도자의 최소한 기대치에도 못미치는 세속적 모습으로 인하여 종교지도자와 회교를 외면하고 떠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국교회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다. WCC 등장으로 종교다원주의 즉 예수십자가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많은 목회자들의 비성경적 비전리 때문에 발잡을 설친다”고 심히 개탄했다.



정총재는 또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오직 말씀속 진리로 어떠한 상황속에서도 신앙의 가치관이 불변해야 한다. 이것이 없으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 왕의 총애를 받으며 충성받은 다니엘의 친구들인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다른 신앙에는 어떠한 강요에도 한마디로 단호하게 거절하였듯, 이같은 신앙이 오늘날 한국 목회자들에게도 절실히 필요하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보느냐에 따라 한국교회가 성장할 것인지 추락할 것인지 기로에 있어 삼히 어려운 문제이다. 이는 언론이 해결해야 할 책임이 크다. 작은 것부터 시작 한국교회가 바로 서서 가는데 사명감당을 다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설교 했다.

이어 사회자의 예배 참석한 회원사 대표를 소개했으며 이어 정서영 총재의 신년인사, 사무총장 김재만 목사의 광고후 자원위원

지용운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쳤다.

정총재는 신년인사를 통해서 “모든 언론사들이 대체로 힘들어한다. 한국교회도 또한 힘들어하고 있다. 이는 한국교회가 재갈질을 찾지 못하고 점점 축소되어 가고 있는 것이 주 원인이다. 해가 갈수록 신학교 신입생이 미달되고 있으며 재정적자 또한 심화되고 있다. 이를 극복 회귀하는 길을 찾지 않으면 갈수록 힘들 것이다. 대학교 동아리가 이미 없어지고, 이름을 타고 많은 이단들이 침투하고 있다. 또한 '60대 50대 40대 30대' 이하 대가 끊어져 중간층이 없는 실정이다. 먼저 출석하지 않고 있는 성도들을 최대한 출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올해는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 했다.

서산 이룸교회, 설맞아 풍성한 사랑실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라는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서산이룸교회(담임목사 백종석) 행복나눔센터는 설 명절을 맞이해 올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지난 1월 27일, 백종석 담임목사를 비롯한 성도들의 자발적인 섬김으로 열린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한 나눔 플러스 바자회’ 수익금 4,306,000원과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이 담긴 ‘행복한 나눔 헌금’ 4,976,000원을 모금했다.

모금된 전액은 지난 2일 오전 11시 서산이룸교회 행복나눔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장학금 전달식을 통해 인근 지역의 초등학교 및 중

학교를 대상으로 평소 품행이 바르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생들을 추천받아 11명의 학생들에게 총 3,300,000원의 ‘꿈이름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백종석 담임목사는 “작년까지는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중학교 입학 학생들에게 무상 교복이 지급된 탓에 어떻게 해야 할까를 기도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큰 꿈과 비전을 품고 미래를 향한 걸음을 내딛는데 도움이 되도록 ‘꿈이름 장학금’으로 대체하여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산이룸교회는 또한 서산시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이웃들과

도움이 필요한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라면, 생필품 등을 담은 사랑의 ‘나눔 박스’를 제작해 39가정에 총 5,001,000원을 전달했다.

특히 올해는 서산지역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가족을 돕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1,000,000원을 후원했으며,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서지방법의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으로 1,000,000원을 전달했다.

백종석 담임목사는 “우리의 작은 나눔을 통하여 복지 사각 지역에 놓여 있는 이웃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며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앞으로도 사랑의 쌀 나누기, 꿈이름 장학금, 서산지역 범죄 피해자 가



족지원 센터 후원 등으로 더욱 많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며 지역민들과 호흡을 함께해온 서산이룸교회는 서산 성서화운동의 중심교회이다.

특히 지난 2011년 10월에는 세계

성서화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충남 성서화운동본부 주관으로 서산국제성서화대회를 이 교회에서 개최되어 담임목사와 온 교인들이 힘을 다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데 앞장섰다. 당시 백종석 담임목사(원로목사)는 충남성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겸 상임대회장으로 섬겼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3·1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 및 유적지 탐방

“기도로 나라를 바로 세우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의 횃불을 들자」



한홍교 목사



신한철 목사



김준희 목사



박명민 목사



박승주 목사



유적지 탐방! ① 유관순기념관 ② 매봉교회 ③ 아우내장터 ④ 독립기념관

3·1 만세운동 탐방 일정

오전 8:30 용산역광장 출발 / 11:00 유관순열사기념관 홍보실, 3·1 정신 계양 예배 / 12:10 유관순열사생가 방문, 12:20 매봉교회(유관순 열사가 다니던 교회)기도회 / 12:40 아우내장터(유관순 열사 만세운동 현장) / 13:00 점심 / 14:00 독립기념관(천안 목천) 탐방 / 15:30 서울로 출발 / 17:30 용산역 도착(해산)...

